



농업·농촌경제동향

2007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국내외농업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
(권오복 obkwon@krei.re.kr/류상모 lesamang@krei.re.kr)

연락처: 3299-4220 / 팩스: 964-5631

< 목 차 >

I.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1. 경제성장	1
2. 환율 및 원유가격	3
3. 세계 농업·농정 동향	5
4. 세계 곡물 전망	10

II.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25
2. 소비 및 투자	28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31
4. 고용	32
5. 물가	33
6. 금융 및 외환	38

III.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41
2. 농가교역조건	44
3. 농업인력	45
4. 농산물 수출입	46

I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53
2. 채소류	56
3. 과일	72
4. 과채	89
5. 축산	103

V. 특별주제

1. DDA, 농업협상 동향	117
2. EU, 동물복지정책 개요	123

【요약】

I.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

□ 국제경제동향

- 2007년 3/4분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여파에 의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 미국경제는 서브 프라임에서 기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고용·소비 등 실물 지표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함.
- 일본경제는 수출 및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경기회복기조가 지속됨.
- 중국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기과열 양상이 지속됨.
- 유로지역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상승하였지만 고용이 견실하고 산업생산 및 수출이 양호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국제 유가는 OPEC의 증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기대 등에 의해 상승함.

□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우유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2007년 원유 생산량은 8,358만 톤으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유제품 가격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유제품 수요가 여전히 많아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 미국의 2007년 3분기 돼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3.2% 증가한 240만 톤으로 전망됨. 상반기보다 사료비가 감소하여 3분기 도체중이 올해 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0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2.6% 증가한 97만 톤으로 전망됨.
- 2007년 상반기 중국 과일 작황은 일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이 높아 전년보다 좋은 상황임. 열대과일 생산량과 출하량은 증가하였고 과일 수출입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2007년 상반기 중국의 과일 수출입총액은 21.9억 달러임.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6.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9억 달러로 21.1% 증가하였음.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8% 증가하였음.
- 중국의 동남아국가와의 과일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동남아 국가에는 52.5만 톤, 2.6억 달러에 달하는 과일을 수출하였음. 이는 과일 수출총량의 22.9%, 수출총액의 15.2%에 해당함. 동시에 동남아국가로부터의 과일수입도 높은 비중을 유지함.
- 일본 농협중앙회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여성의 정조합원 가입촉진’, ‘여성의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등을 결의하였음.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는 여성농업인의 선거의원 입후보 촉진, 선임의원으로서의 등용 촉진 등을 추진하는 ‘신·농위조직 활동개혁 프로그램’을 도도부현 농업회의에서 결정하였음.

- EU의 낙농 관련 정책은 1984년 우유 쿼터제 도입과 2003년의 공동농업 정책(CAP) 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 EU의 낙농 관련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크게 변화하였음. 현재 EU의 낙농 부문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가격 지지와 시장개입 정책은 후퇴하고 수출보조금도 감축되고 있음.
- 2007~08년 세계 밀의 톤당 평균 가격은 세계 주요 생산국에서 작물 생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지만 전년과 같은 수준인 210달러로 전망됨. 세계 밀 소비도 생산과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밀 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호주의 축산 농가들은 2006~07년 한발의 영향으로 단기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 수를 줄인 대신 경종작물 재배를 늘렸음. 그에 따라 2007~08년 동계 곡물 파종면적은 11% 정도 늘어나 2,0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동부와 남부 경작지대에서 예전에 비해 2007~08년 동절기 경작 시기가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황이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0억 9,87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Ⅱ . 국내 경제 동향

- 2007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 및 재화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5.0% 성장함.
-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함.
- 2/4분기 건설투자는 3.2%, 설비투자는 11.9% 성장함.
- 2/4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함.
- 2/4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함.
- 2/4분기 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유지함.
- 2/4분기 출하지수는 내수 및 수출출하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2/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한 930억 달러를 기록함.
- 2/4분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한 8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임.
-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대비 2.1%, 전분기대비 5.1% 하락함.
-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하락함.

Ⅲ. 농촌경제 동향

- 8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5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 전월대비 1.3% 하락함.
- 8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한 131.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감.
- 8월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7.1로서 전년대비 3.8%p, 전월대비 1.3%p 낮아짐.
- 8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8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함.
- 2007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1,78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8% 증가함.
- 2007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18억 5천 4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1.2% 증가함.
- 2007년 9월까지 대중 농림축산물 수출입은 각각 17.9% 증가, 51.7% 증가하였으며 대일 농림축산물 수출입은 각각 4.4% 감소, 18.9% 증가하였음.



I. 국제 경제 및 농축산업 동향¹⁾

1. 경제성장

- 2007년 3/4분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미국 금리 인하 등에 의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성장세가 지속되어 세계경제 성장세는 지속될 예상임.
-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고용·소비 등 실물 지표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증가함.
 -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부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됨.
 -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안하로 증시가 회복되고 CP발행이 증가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진정됨.
- 중국경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함.
 - 소비와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기과열 양상이 지속됨. 인민은행은 대출증가세 억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완화를 위해 지급준비율 및 금리인상 조치를 단행함.
-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투자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소비가 증가하고 수출 신장세도 확대됨.
- 유로지역 경제는 산업생산 및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권오복 연구위원(obkwon@krei.re.kr), 류상모 연구원(lesama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¹

단위: %

	2004	2005	2006	2007
전 세 계 ²	4.1(5.3)	3.5(4.9)	4.0(5.4)	3.5(4.9)
선 진 국	(3.3)	(2.5)	(3.1)	(2.5)
미 국	3.9	3.2	3.3(3.3)	2.1(2.2)
일 본	2.7	1.9	2.2(2.2)	2.2(2.3)
영 국	3.3	1.9	2.8(2.7)	2.7(2.9)
유로지역	1.8	1.5	2.8(2.6)	2.7(2.3)
독 일	0.8	1.1	2.9(2.7)	2.9(1.8)
프 랑 스	2.0	1.2	2.1(2.0)	2.1(2.0)
개 도 국	(7.7)	(7.5)	(7.9)	(7.5)
아 시 아	7.5(8.7)	7.3(9.2)	7.2(9.4)	7.5(8.8)
중 국	10.1	10.4	10.7(10.7)	10.6(10.0)
중 남 미	6.1	4.3	4.7(4.8)	4.6(4.9)
중 동	6.9	6.3	5.2(5.7)	5.1(5.5)
아프리카	5.1	5.0	5.5(5.5)	6.0(6.2)
중앙·동유럽	6.7	5.6	6.1(6.0)	5.6(5.5)
러 시 아	7.2	6.4	6.7(6.7)	6.4(6.4)

주: 1. ()안의 수치는 IMF자료로 PPP(purchasing power parity)방식의 추정치

2.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류에서 Global Insight는 일본만을 제외하지만,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선진국에 포함)함.

원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 2007.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3/4분기 달러화는 주요통화인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2007년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임.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엔캐리거래²⁾ 증가,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2007년 상반기에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2007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락세를 보임.
 - 엔/달러 환율은 9월말 현재 달러 당 114.8엔임.
 - 유로/달러 환율은 9월말 현재 달러 당 0.701유로임.
- 주요 투자 은행들은 향후 달러화는 주요 통화인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단기에는 약세를 보이다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엔/달러 환율은 1년 후 113.9엔으로 상승, 유로/달러 환율은 0.73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3	2004	2005	200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엔/달러	107.0	103.8	117.8	119.6	121.7	123.2	119.2	116.1	114.8
유로/달러	0.794	0.738	0.844	0.733	0.745	0.744	0.729	0.733	0.701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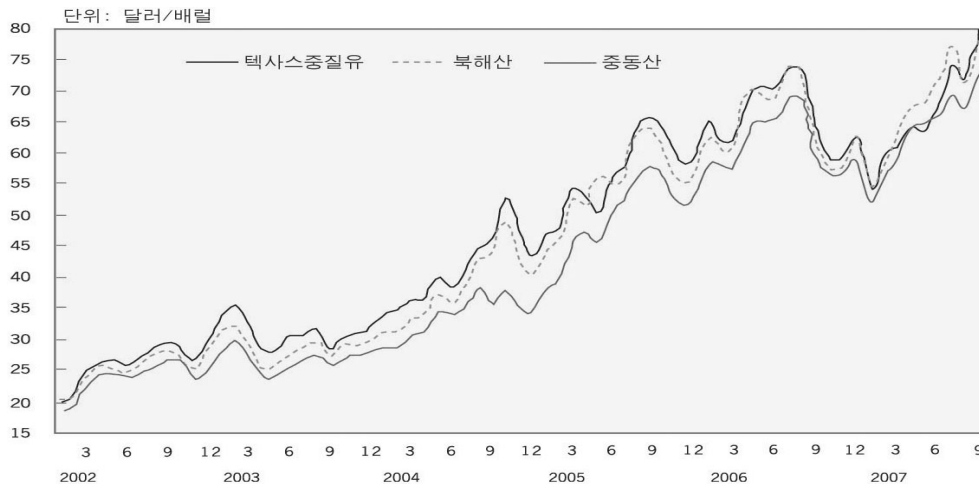
2) Yen carry trade,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제3국에 투자하는 금융거래.



2.2. 원유가격

- 국제 유가는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9월중 국제유가는 미 원유재고 감소 및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 달러화 약세 등으로 오름세를 보여 하순경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2008년 국제유가는 2007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원유 가격 동향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배럴

	2005	2006	2007		
			7월	8월	9월
WTI (텍사스 중질유)	61.06 (40.8)	60.85 (△0.3)	74.14 (△0.4)	72.39 (△0.9)	79.95 (25.4)
Brent (북해산)	58.34 (44.5)	58.96 (1.1)	77.51 (5.2)	71.18 (△2.6)	77.51 (26.2)
Dubai (중동산)	53.16 (53.7)	56.48 (6.2)	69.68 (0.8)	67.40 (△2.1)	73.32 (22.3)

주: 월평균가격,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3. 세계 농업·농정 동향³⁾

3.1. 2007년도 미국의 축산물 수급전망

-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소, 돼지, 닭고기 가격은 전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우유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통계국은 2007년 7월 20일 작황보고에서 7월 현재 소 사육두수는 1억 480만마리(전년 동기대비 40만두 증가)이며, 이중 암소는 3,335만두(전년 대비 10만두 감소), 젖소 915만두(전년과 동일)로 발표하였음.
- 미국의 2007년 원유 생산량은 8,358만 톤으로 전망되며, 사육두수 증가세는 내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유제품 가격은 올해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유제품 수요가 여전히 많아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 미국의 2007년 3분기 돼지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약 3.2% 증가한 240만 톤으로 전망됨. 상반기보다 사료비가 감소하여 3분기 도체중이 올해 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임. 2007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2.6% 증가한 97만 톤으로 전망됨.
- 닭고기 2007년 상반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2.7% 감소한 798만 톤이었음. 도계수수와 도체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하반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821만 톤으로 추정됨.
- 계란 수출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7년 상반기 계란가격은 높게 형성되었음. 4분기 계란 도매가격은 공급 증가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3)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83호~제85호 (농정연구센터 김태곤 연구위원(taegon@krei.re.kr)등 작성)에서 발췌하였음.



3.2. 2007년 중국 상반기 과일시장 동향

- 2007년 상반기 중국 과일 생산은 일부 지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지만 대부분 지역의 평균 기온이 높아 전년보다 좋은 상황임. 열대과일 생산량과 출하량은 증가하였고 과일 수출입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2007년 상반기 중국의 과일도매시장 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임. 복숭아, 과채, 사과, 포도류의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지만 감귤, 배, 열대과일류 가격은 하락하였음.
- 상반기 과일 수출입총액은 21.9억 달러임.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6.7%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4.9억 달러로 21.1% 증가하였음. 무역흑자는 12.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8%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품목은 신선사과, 과일즙 및 감귤임. 신선 및 냉동과일 수출은 과일 수출총량의 47.7%를 차지하는 109.2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34.4% 증가하였음.
- 중국의 주요 과일 수출지역은 산둥성, 섬서성, 절강성, 복건성 및 광둥성임. 과일 수입 상위 5개 성시는 광둥성, 상해시, 북경시, 료녕성과 산둥성임.
- 동남아국가와의 과일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동남아국가에는 52.5만 톤, 2.6억 달러에 달하는 과일을 수출하였음. 이는 중국 과일 수출총량의 22.9%, 수출총액의 15.2%에 해당함. 동시에 동남아국가로부터의 과일수입도 높은 비중을 유지함.



3.3. 일본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동향

- 일본 여성농업인은 2005년 전체 농업 취업인구의 53.5%를 차지하며 일본 농업 및 농촌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 담당 작목은 노지채소가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벼농사 16.4%, 시설 채소 15.9%, 과수류 11.5%임.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 40%, 남성의 60%가 경영자 혹은 공동경영자로서 농업경영 전체 혹은 특정부문의 경영을 도맡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함.
- 설문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혹은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 농업인은 50.4%로, 과반수의 여성농업인은 보수를 받지 않음. 보수를 받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월평균 수취금액은 10만 엔 이하가 60% 이상으로 보수도 적은 편임.
- 농업위원 혹은 농업협동조합 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1990년 여성농업위원 비율은 0.15%에서 2005년 4.12%로 증가하였고, 여성 농협조합원 수도 동기간에 12.1%에서 16.1%로 증가하였음.
-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본 농협중앙회는 2006년 10월 11일 ‘청년·여성의 정조합원 가입촉진’, ‘여성의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등을 결의하였음.
- 전국농업회의소는 여성농업인의 선거의원 입후보 촉진, 선임의원으로서의 등용 촉진 등을 추진하는 ‘신·농위조직 활동개혁 프로그램’을 도도부현 농업회의에서 결정하였음.



3.4. EU 우유 및 유가공산업 및 관련정책 개요

- EU의 낙농 관련 정책은 1984년 우유 쿼터제 도입과 2003년의 공동농업 정책(CAP) 개혁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 낙농 부문의 구조는 EU 회원국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구조화되어 있음. 그러나 EU 전역에 걸쳐 낙농부문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나 기타 기술적 요인들에서 나타나던 국가 간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음.
-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우유가 생산되며, 우유는 EU의 농업생산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농업총생산액 중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북유럽 국가에서 높고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낮음.
- 1984년에 도입한 우유 쿼터제는 EU 낙농가들의 연간 우유 생산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초과세(superlevy)’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신의 쿼터 이상으로 우유를 생산하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음.
- 우유 및 유제품에 관한 공동시장조직은 1968년에 형성되었음. 과일생산시 저장 및 시장물량 회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2003년 개혁으로 ‘역내 시장개입 정책’, ‘무역관련 정책’, ‘낙농가 직접 지불 정책’ 세 가지로 구분됨.
- EU의 낙농 관련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크게 변화하였음. 현재 EU의 낙농 부문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음. 가격 지지와 시장개입 정책은 후퇴하고 수출보조금도 감축되고 있음.



3.5. 호주 2007년 2분기 농산물수급 전망

- 세계 주요 생산국에서 작물 생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지만 2007~08년 세계 밀의 톤당 평균 가격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10달러로 전망됨. 세계 밀 소비도 생산과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밀 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2007~08년 세계 밀 생산은 전년 대비 3,200만 톤 증가한 6억 2,300만 톤으로 전망됨. EU,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와 같은 주요 생산국에서 생산량 증가가 전망됨. 미국 동계 밀 파종면적이 증가하여 미국의 밀 전체 생산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5,800만 톤으로 전망됨. 세계최대의 밀생산국인 중국에서는 기후조건이 나쁘고 파종면적이 줄어 2007~08년 밀 생산은 4% 감소한 1억 100만 톤으로 전망됨.
- 호주의 축산 농가들은 2006~07년 한발의 영향으로 단기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 수를 줄인 대신 경종작물 재배를 늘렸음. 그에 따라 2007~08년 동계 곡물 파종면적은 11% 정도 늘어나 2,000만 ha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7~08년 세계 사료 및 기타 곡물 생산량은 사상 최고 수준인 10억 5,000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강세로 인해 재고가 추가적으로 줄어 가격은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보리 가격은 소비에 비해 재고가 낮은 수준인 가운데 밀과 옥수수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라 사료용 수요가 증가하여 강세일 전망이다.
- 세계 사료곡물소비는 사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에탄올 수요의 증가로 인해 10억 6,0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 수요 증가와 아시아 개발도상국 및 남미에서의 인구 증가와 소득향상으로 옥수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동부와 남부 경작지대에서 예전에 비해 2007~08년 동절기 경작 시기가 빨리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황이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



됨. 사료곡물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두 배 증가한 1,330만 톤으로 예상됨. 생산이 회복함에 따라 2007~08년 호주의 사료곡물 수출도 전년대비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07~08년 호주 전체의 캐놀라 생산은 140만 톤으로 한발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던 전년보다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 단계에서 볼 때 단수는 ha당 1.4톤으로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65만톤 증가한 91만톤, 수출액은 3억 7,600만 달러로 예상됨.

4. 세계 곡물 전망⁴⁾

- 2007/08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0억 7,243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쌀을 포함한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특히,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9.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3,458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4억 701만 톤으로 전년보다 1.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약 2,900만 톤 늘어난 수준임.
- 2007/08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20억 9,377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6/07년보다도 4,817만 톤 늘어난 수준임. 2004/05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5/06년부터 역전되었고 2007/08년의 경우 소비량이 생산량을 2,134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4)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세계농업정보”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농산업경제연구센터 성명환 연구위원(mhsung@krei.re.kr)작성)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Pinksheet, October 2007, 내용과 미 농무부(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 Outlook」 October, 2007에서 발췌하였음.



곡물의 세계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9	2007.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019.00	1,986.46	2,086.49	2,072.43	4.1	△0.7
공 급 량	2,422.90	2,376.48	2,419.50	2,407.01	1.1	△0.5
소 비 량	2,032.88	2,045.87	2,103.91	2,093.77	2.4	△0.5
교 역 량	253.07	244.79	248.98	250.80	△1.3	0.7
기말재고량	390.02	330.61	315.59	313.24	△6.4	△0.7
기말재고율	19.2	16.2	15.0	15.0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2억 5,08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4% 감소한 3억 1,324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6/07년보다 1.4% 포인트 감소한 15.0%가 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 ¹⁾	소비량 ²⁾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75/76	123,682	143,575	121,682	15,228	21,893	18.0
1976/77	134,221	156,114	128,119	15,344	27,995	21.9
1977/78	131,952	159,946	132,149	16,054	27,798	21.0
1978/79	144,550	172,348	139,046	17,674	33,302	24.0
1979/80	140,994	174,296	141,523	19,410	32,773	23.2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11	242,026	203,144	25,338	38,882	19.1
2006/07(E)	199,137	238,019	204,560	25,407	33,458	16.4
2007/08(P)	207,243	240,701	209,377	25,080	31,324	15.0

주 :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 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4.1. 쌀

- 2007/08년 쌀 생산량은 2006/07년 보다 0.1% 증가한 4억 1,86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국의 생산량은 전년보다 0.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4억 2,485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지난해 4억 1,842만 톤보다 약 643만 톤 많은 수준임.
- 2007/08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3.9% 증가한 3,000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태국,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14.9%, 5.9%, 2.2% 씩 늘어나고,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2%가 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수출량에서 태국이 29.9%, 베트남 15.6%, 미국이 11.3%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5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9	2007.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34,221	156,114	418.49	418.64	0.1	0.0
공 급 량	131,952	159,946	495.68	495.79	0.0	0.0
소 비 량	144,550	172,348	424.69	424.85	1.5	0.0
교 역 량	140,994	174,296	29.78	30.06	3.9	0.9
기말재고량	142,934	175,707	70.99	70.94	△8.0	△0.1
기말재고율	18.6	18.1	16.7	16.7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493.06	493.63	496.30	496.39	0.6	0.0
기초재고량	75.02	77.26	75.42	75.58	△2.2	0.2
생산량	418.04	416.37	420.88	420.81	1.1	0.0
미국	7.11	6.24	5.85	6.08	△2.6	3.9
태국	18.20	18.25	18.40	18.40	0.8	0.0
베트남	22.77	22.70	22.99	22.99	1.3	0.0
인도네시아	34.96	33.30	34.00	34.00	2.1	0.0
중국	126.41	128.00	129.70	129.70	1.3	0.0
일본	8.26	7.79	7.94	7.94	1.9	0.0
수입량	26.15	28.54	27.40	27.43	△3.9	0.1
인도네시아	0.54	2.00	1.60	1.60	△20.0	0.0
중국	0.65	0.80	0.90	0.90	12.5	0.0
일본	0.67	0.65	0.70	0.70	7.7	0.0
소비량	415.81	418.04	424.55	424.40	1.5	0.0
미국	3.81	3.93	3.99	3.99	1.5	0.0
태국	9.50	9.57	9.60	9.60	0.3	0.0
베트남	18.39	18.50	18.75	18.75	1.4	0.0
인도네시아	35.80	35.85	36.00	36.00	0.4	0.0
중국	128.00	127.90	129.10	129.10	0.9	0.0
일본	8.25	8.25	8.15	8.15	△1.2	0.0
수출량	30.08	29.31	29.85	29.79	1.6	△0.2
미국	3.69	3.00	3.07	3.26	8.7	6.2
태국	7.38	8.80	9.00	9.00	2.3	0.0
베트남	4.71	4.70	4.80	4.70	0.0	△2.1
기말재고량	77.26	75.58	71.76	71.99	△4.7	0.3
미국	1.37	1.35	0.82	0.86	△36.3	4.9
태국	3.64	3.52	3.33	3.33	△5.4	0.0
베트남	1.32	1.27	1.06	1.26	△0.8	18.9
인도네시아	3.15	2.60	2.20	2.20	△15.4	0.0
중국	36.78	36.28	36.28	36.28	0.0	0.0
일본	2.40	2.38	2.67	2.67	12.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7,094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07/08년 기말재고율은 16.7%로 전년도의 18.4%보다 약 1.7% 포인트 줄어든 수준임.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84만 톤으로 전망되어 지난해 보다 33.9%나 줄어들 것으로 보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의 재고량도 각각 5.5%, 19.2%, 7.7%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일본의 재고량은 12.2%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종1	2004/05	2005/06	2006/07	2006/07					2007/08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중립종	405	484	538	551	551	551	551	536	535	576
장립종	278	301	320	323	327	324	325	331	334	332

주: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2. 추정치임.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7j October 15, 2007.

세계시장 쌀 가격

단위: 달러/cwt

월	2005/06		2006/07		2007/08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8 월	5.17	5.19	6.78	6.80	7.51	7.59
9 월	5.24	5.26	6.80	6.82	7.66	7.75
10 월	5.36	5.38	6.85	6.87		
11 월	5.65	5.67	6.90	6.92		
12 월	5.80	5.82	6.95	6.97		
1 월	6.12	6.15	7.20	7.22		
2 월	6.62	6.63	7.75	7.91		
3 월	6.66	6.67	7.97	8.14		
4 월	6.66	6.67	7.97	8.14		
5 월	6.70	6.71	7.86	8.03		
6 월	6.76	6.77	7.79	7.95		
7 월	6.87	6.88	7.76	7.91		
평 균 ¹	6.13	6.15	7.38	7.47	7.63	7.72

주: 1) 세계시장 주 단위가격 단순평균

2)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0453 metric ton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7j October 15, 2007.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5월 이후 다소 하락하여 9월 기준 1cwt당 7.66달러를 기록함.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1/4분기 들어 상승함에 따라 2007/08년 예상가격은 톤당 333달러로 예상됨.

4.2. 소맥

-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1.2% 많은 6억 4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전년도 이상기후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호주의 소맥 생산량은 2005/06년의 약 55%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캐나다는 식부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18.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6/07년 6억 1,799만 톤보다 약 177만 톤 감소한 6억 1,622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소맥 소비량은 0.9% 늘어나는 반면 중국, EU에서 곡물 소비가 각각 0.5%, 3.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2.64	592.98	610.15	612.27	3.3	0.3
공 급 량	773.85	742.14	732.10	736.42	△0.8	0.6
소 비 량	624.49	617.99	620.07	619.87	0.3	0.0
교 역 량	115.61	107.09	107.42	107.57	0.4	0.1
기말재고량	149.16	124.15	112.03	116.55	△6.1	4.0
기말재고율	23.9	20.1	18.1	18.8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72.08	740.71	731.32	723.19	△2.4	△1.1
기초재고량	150.42	147.63	125.08	122.72	△16.9	△1.9
생산량	621.66	593.08	606.24	600.47	1.2	△1.0
미국	57.28	49.32	57.53	56.25	14.1	△2.2
호주	25.37	9.90	21.00	13.50	36.4	△35.7
캐나다	25.75	25.27	20.30	20.60	△18.5	1.5
EU-25	132.36	124.80	121.83	120.76	△3.2	△0.9
중국	97.45	104.00	105.00	105.00	1.0	0.0
러시아	47.70	44.90	47.00	48.00	6.9	2.1
수입량	110.15	112.35	104.11	103.03	△8.3	△1.0
EU-25	6.76	5.50	6.50	6.50	18.2	0.0
브라질	6.72	7.75	6.80	6.80	△12.3	0.0
북아프리카	18.56	16.21	16.75	16.55	2.1	△1.2
파키스탄	0.95	0.06	0.15	0.50	733.3	233.3
인도	0.03	6.71	3.00	3.00	△55.3	0.0
러시아	1.28	0.86	1.20	1.00	16.3	△16.7
소비량	624.45	617.99	618.96	616.22	△0.3	△0.4
미국	31.36	31.04	32.47	31.32	0.9	△3.5
EU-25	127.53	125.70	121.30	120.80	△3.9	△0.4
중국	101.00	101.00	100.50	100.50	△0.5	0.0
파키스탄	21.50	21.90	22.40	22.40	2.3	0.0
러시아	38.40	36.40	36.70	37.20	2.2	1.4
수출량	116.16	110.57	106.91	105.80	△4.3	△1.0
미국	27.29	24.73	29.94	31.30	26.6	4.5
캐나다	16.00	19.66	14.00	14.00	△28.8	0.0
EU-25	15.69	13.50	10.50	10.00	△25.9	△4.8
기말재고량	147.63	122.72	112.36	106.97	△12.8	△4.8
미국	15.55	12.41	9.84	8.35	△32.7	△15.1
EU-25	23.38	14.48	11.01	10.94	△24.4	△0.6
중국	34.89	35.49	38.06	37.49	5.6	△1.5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5/06년 1억 1,616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6/07년에는 1억 1,057만 톤, 2007/08년에는 1억 580만 톤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EU와 북아프리카의 수입량이 각각 18.2%, 2.1% 증가하는 반면 인도와 브라질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각각 55.3%, 12.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 기말재고량은 1억 697만 톤으로 전년보다 1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1981/82년 이후 최저 수준임. 특히, EU와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각각 24.4%, 32.7% 감소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율도 지난해의 19.9%에서 17.4%로 2.5%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4.3. 옥수수

- 미국, 멕시코 등 주요 국가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07/08년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9.3% 늘어난 7억 6,897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 멕시코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각각 26.4%, 5.5%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7억 6,36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옥수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13.3% 증가하고 멕시코도 전년대비 9.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07/08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531만 톤 초과할 전망이다.

세계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96.22	703.41	774.10	768.97	9.3	△0.7
공 급 량	826.91	826.40	875.06	874.02	5.8	△0.1
소 비 량	703.93	721.35	769.62	763.66	5.9	△0.8
교 역 량	80.92	91.31	88.55	91.09	△0.2	2.9
기말재고량	122.99	105.05	105.44	110.36	5.1	4.7
기말재고율	17.5	14.6	13.7	14.5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26.91	826.40	875.06	874.02	5.8	△0.1
기초재고량	130.69	122.99	100.96	105.05	△14.6	4.1
생산량	696.22	703.41	774.10	768.97	9.3	△0.7
미국	282.31	267.60	338.04	338.29	26.4	0.1
아르헨티나	15.80	22.50	22.50	22.50	0.0	0.0
EU-25	61.15	55.19	46.94	46.39	△15.9	△1.2
멕시코	19.50	22.00	23.20	23.20	5.5	0.0
동남아시아	16.46	16.81	17.03	17.03	1.3	0.0
중국	139.36	145.00	147.00	143.00	△1.4	△2.7
수입량	79.39	88.76	87.93	90.08	1.5	2.4
이집트	4.40	4.60	4.50	4.50	△2.2	0.0
EU-25	2.63	7.10	8.00	9.50	33.8	18.8
일본	16.62	16.70	16.10	16.10	△3.6	0.0
멕시코	6.79	8.80	10.20	10.20	15.9	0.0
동남아시아	4.40	4.11	4.20	4.20	2.2	0.0
한국	8.48	9.00	9.10	9.10	1.1	0.0
소비량	703.93	721.35	769.62	763.66	5.9	△0.8
미국	232.06	230.78	267.73	261.38	13.3	△2.4
EU-25	61.50	61.10	61.50	61.00	△0.2	△0.8
일본	16.70	16.50	16.20	16.20	△1.8	0.0
멕시코	27.90	30.30	33.30	33.30	9.9	0.0
동남아시아	20.25	20.55	21.35	21.35	3.9	0.0
한국	8.58	9.10	9.20	9.20	1.1	0.0
중국	137.00	143.00	148.00	148.00	3.5	0.0
수출량	80.92	91.31	88.55	91.09	△0.2	2.9
미국	54.20	53.97	57.15	59.69	10.6	4.4
아르헨티나	9.46	15.80	16.00	16.00	1.3	0.0
중국	3.73	5.20	3.00	1.50	△71.2	△50.0
기말재고량	122.99	105.05	105.44	110.36	5.1	4.7
미국	49.97	33.12	42.55	50.72	53.1	19.2
아르헨티나	1.16	1.16	0.96	0.96	△17.2	0.0
EU-25	9.93	10.37	3.76	4.96	△52.2	31.9
중국	35.26	32.08	28.66	25.68	△20.0	△10.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 2007/08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9,109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5%, 17.6%로 이들 두 국가가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10.6%, 1.3%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억 1,03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531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임. 그러나 2007/08년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0.1% 포인트 줄어든 14.5%가 될 전망이다.

4.4. 대두 및 대두박

- 2007/08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099만 톤으로 전년대비 6.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의 생산량은 5.1%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은 각각 18.5%, 9.9%, 0.4%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06/07년 2억 2,345만 톤보다 983만 톤 늘어난 2억 3,32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아르헨티나, 중국, 미국의 소비량이 각각 15.5%, 4.4%,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7,48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5.4%, 브라질이 41.0%, 아르헨티나가 13.6%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은 전년대비 12.8% 줄어드는 반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30.6%, 20.0%씩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035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294만 톤과 비교하여 19.4%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6.4% 포인트



낮은 2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7/08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5,987만 톤으로 전년보다 4.9%, 소비량은 1억 5,992만 톤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세계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0.44	235.77	221.27	220.99	△6.3	△0.1
공 급 량	267.90	288.65	284.34	283.93	△1.6	△0.1
소 비 량	215.25	223.45	233.94	233.28	4.4	△0.3
교 역 량	63.92	70.34	74.99	74.89	6.5	△0.1
기말재고량	52.88	62.94	50.35	50.75	△19.4	0.8
기말재고율	24.6	28.2	21.5	21.8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세계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45.61	152.42	160.30	159.87	4.9	△0.3
공 급 량	152.02	157.98	165.90	165.65	4.9	△0.2
소 비 량	145.68	150.66	160.02	159.92	6.1	△0.1
교 역 량	51.42	53.34	56.18	56.39	5.7	0.4
기말재고량	5.56	5.78	5.70	5.78	0.0	1.4
기말재고율	3.8	3.8	3.6	3.6	-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5,63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아르헨티나가 52.3%, 브라질 21.3%, 미국이 13.3%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개국의 수출비중이 8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78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3.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542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17만 대비 4.8%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2007/08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과 동일한 3.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67.90	288.65	284.34	283.93	△1.6	△0.1
기초재고량	47.46	52.88	63.07	62.94	19.0	△0.2
생산량	220.44	235.77	221.27	220.99	△6.3	△0.1
미국	83.37	86.77	71.27	70.71	△18.5	△0.8
아르헨티나	40.50	47.20	47.00	47.00	△0.4	0.0
브라질	57.00	59.00	61.00	62.00	5.1	1.6
중국	16.35	16.20	15.20	14.60	△9.9	△3.9
수입량	64.14	68.08	74.94	74.98	10.1	0.1
중국	28.32	28.75	33.50	33.50	16.5	0.0
EU-25	13.95	15.00	15.68	15.68	4.5	0.0
일본	3.96	4.10	4.15	4.15	1.2	0.0
소비량	215.25	223.45	233.94	233.28	4.4	△0.3
미국	52.61	53.23	54.14	54.08	1.6	△0.1
아르헨티나	33.34	34.70	40.08	40.08	15.5	0.0
브라질	31.17	33.05	32.28	32.28	△2.3	0.0
중국	44.54	45.83	48.45	47.85	4.4	△1.2
EU-25	14.99	16.18	16.72	16.72	3.3	0.0
일본	4.19	4.31	4.33	4.33	0.5	0.0
멕시코	3.86	4.01	4.05	4.05	1.0	0.0
수출량	63.92	70.34	74.99	74.89	6.5	△0.1
미국	25.58	30.43	26.54	26.54	△12.8	0.0
아르헨티나	7.25	8.50	10.20	10.20	20.0	0.0
브라질	25.91	23.50	30.69	30.69	30.6	0.0
기말재고량	52.88	62.94	50.35	50.75	△19.4	0.8
미국	12.23	15.59	5.86	5.84	△62.5	△0.3
아르헨티나	16.47	22.18	21.50	20.70	△6.7	△3.7
브라질	16.73	19.24	17.13	18.37	△4.5	7.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5/06	2006/07 (추정)	2007/08(전망)		변동율(%)	
			2007.6	2007.7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52.02	157.98	165.90	165.65	4.9	△0.2
기초재고량	6.41	5.56	5.60	5.78	4.0	3.2
생산량	145.61	152.42	160.30	159.87	4.9	△0.3
미국	37.42	38.99	39.36	39.36	0.9	0.0
아르헨티나	25.01	25.74	30.23	30.23	17.4	0.0
브라질	21.84	23.35	22.74	22.74	△2.6	0.0
인도	4.77	5.27	5.44	5.55	5.3	2.0
중국	27.30	28.25	30.25	29.80	5.5	△1.5
수입량	50.64	51.78	56.01	56.44	9.0	0.8
EU-25	22.82	22.60	24.60	24.60	8.8	0.0
중국	0.84	0.04	0.50	0.85	2025.0	70.0
소비량	145.68	150.66	160.02	159.92	6.1	△0.1
미국	30.11	31.12	32.02	32.02	2.9	0.0
아르헨티나	0.57	0.60	0.64	0.64	6.7	0.0
브라질	9.60	10.30	10.88	10.98	6.6	0.9
인도	1.55	1.94	2.00	2.00	3.1	0.0
EU-25	32.76	33.51	35.96	35.96	7.3	0.0
중국	27.78	27.44	30.20	30.00	9.3	△0.7
수출량	51.42	53.34	56.18	56.39	5.7	0.4
미국	7.30	8.03	7.48	7.48	△6.8	0.0
아르헨티나	24.20	25.20	29.49	29.49	17.0	0.0
브라질	12.90	12.76	12.00	12.00	△6.0	0.0
인도	3.68	3.46	3.47	3.58	3.5	3.2
기말재고량	5.56	5.78	5.70	5.78	0.0	1.4
미국	0.29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67	1.62	1.72	1.72	6.2	0.0
브라질	1.12	1.64	1.62	1.62	△1.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51, October 12, 2007.



II. 국내경제 동향⁵⁾

1. 경기

- 2007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과 재화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대비 5.0% 성장함.
 - 산업별로는 건설업(3.3%)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서비스업(4.7%)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제조업(5.9%)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지출 항목별로는 건설투자(3.2%)가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11.9%)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화수출(10.6%)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4.2%, 정부소비는 5.9% 증가함.
- 2/4분기 건설투자는 3.2% 성장함.
- 2/4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함.
 - 재화수출은 반도체, 산업용기계, 선박 등을 중심으로 5.2% 증가함.
 - 서비스수출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경비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0.1% 감소함.
- 2/4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2.3% 증가함.
 - 재화수입은 운송장비 및 산업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함.
 - 서비스수입은 운수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 전기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1.6% 감소함.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권오복 연구위원(obkwon@krei.re.kr), 류상모 연구원(lesama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경제성장률 추이 (2000년 실질가격기준)

단위: %(전기대비)

	2005	2006 _p			2007 _p	
	연간	연간	3/4	4/4	1/4	2/4
G D P 성장률	4.2	5.0	4.8	4.0	4.0	5.0
최종 소비지출	3.9	4.5	1.1	1.1	1.3	1.1(4.5)
(민 간)	3.6	4.2	0.9	1.0	1.5	0.8(4.2)
총고정자본형성	2.4	3.2	2.8	1.2	2.0	0.8(6.7)
(건 설)	△0.2	△0.4	2.0	1.9	3.9	-1.3(3.2)
(설 비)	5.7	7.6	3.8	0.1	10.8	3.4(11.9)
총 수 출	8.5	12.4	2.2	0.5	3.1	4.6(10.7)
총 수 입	7.3	11.3	2.2	△0.6	5.4	4.9(12.3)

주: 1) 2006p, 2007p년 자료는 잠정치임.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은 5.9%, 서비스업은 4.7% 증가하였으나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건설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어 3.3% 증가하였음.
-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호조를 보여 전기대비 1.5% 증가함. 설비투자과 건설 투자는 각각 4.4%, 0.8% 증가함.
- 2/4분기 농림어업은 전기대비 0.7% 증가함. 이 중 농업은 축산업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채소 등 재배업 생산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 증가함. 어업은 해면어업과 해면양식업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임.
- 2/4분기 건설업은 전기대비 1.8% 증가함.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건설이 부진하여 0.9% 감소하였고 토목건설은 교통시설 건설이 감소하여 1.0% 감소함.
- 2/4분기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4.7% 성장함.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1.3% 증가함.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2000년 가격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_p			2007 _p	
	연간	연간	3/4	4/4	1/4	2/4
전 산 업	4.2	5.0	4.8	4.0	4.0	5.0
농 립 어 업	0.7	△2.6	△4.7	△2.0	4.0	4.3
제 조 업	7.1	8.4	9.0	5.7	3.8	5.9
건 설 업	△0.1	△0.1	1.4	2.6	4.1	3.3
서 비 스 업	4.0	4.2	3.9	4.1	4.1	4.7

자료: 한국은행

- 2/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확대됨. 산업생산지수는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는 추세임.
- 2/4분기 출하지수는 내수 및 수출출하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세가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다소 둔화됨.
- 반도체·IT 부문과 자동차 부문의 생산이 확대되고 영상음향통신 부문 생산도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증가세가 확대되었음.
- 2/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3.4%를 기록하여 2007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생산과 재고 증가세가 모두 확대되면서 경기확장국면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함.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생	산	10.2	10.1	11.3	5.2	3.3	7.0
출	하	9.1	7.8	9.2	3.8	4.4	7.2
	(수 출)	20.1	11.9	15.7	5.6	6.7	10.0
	(내 수)	2.6	4.5	3.8	2.2	2.5	4.9
재	고	9.3	6.2	6.5	6.2	6.0	2.8
평	균가동율	80.4	81.1	80.6	81.3	81.6	82.8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2. 소비 및 투자

-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이어 4% 증가율을 보이면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임.
- 2/4분기 도소매 판매액지수는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함.
- 소비관련지표들은 전분기에 이어 내구재 부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소비재 판매액 지수는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함.
 - 내구재 판매는 승용차, 가전제품 등의 판매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하여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최근의 소비심리관련 지표는 상승 추세를 지속하여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도소매 판매	2.9	4.2	4.4	4.0	5.3	4.5
소비재 판매액지수	4.1	4.7	2.9	4.5	7.1	5.3
(내 구 재)	6.5	11.0	11.4	9.6	17.0	14.1
(비내구재)	1.2	1.1	△1.7	2.0	2.1	0.9

자료: 통계청, 산업자원부

- 2007년 2/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1.9% 증가해 전분기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운수장비의 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특수산업용기계의 투자가 감소함.
- 2/4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대비 12.1%의 증가를 기록함.
- 2/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3.2%를 기록하여 2006년 하반기 이후의 증가세가 소폭 둔화됨.
- 부문별로 토목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물건설도 주거용건물을 중심으로 건설이 감소하여 건설투자 상승세가 둔화됨.
- 2/4분기 건설투자 동행지표와 선행지표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함.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설 비 투 자	5.1	7.6	11.1	5.3	10.8	11.9
기계류내수출하	0.6	4.7	4.0	6.7	6.5	5.9
국내기계 수주	1.5	18.8	21.0	16.7	15.3	7.4
건 설 투 자	0.4	△0.4	△0.1	3.2	3.9	3.2
국내건설 수주	9.5	9.0	37.1	27.1	26.3	26.3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46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함.
 - 경상소득은 333만 6천원으로 5.5% 증가하고, 비경상소득은 13만 3천원으로 11.6% 감소함.
-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2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함.
 - 비목별로는 교양오락(12.6%), 교육비(11.9%), 가구가사(11.3) 등의 증가폭이 큰 반면, 주거비(-6.6%), 보건의료(1.0%), 광열수도(2.0%) 등은 저조하게 나타남.
-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00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함.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소득	4.4	5.9	3.4	9.2	9.3	4.8
소비 지출	4.0	4.4	0.4	8.3	5.4	5.3
(식료품)	1.8	1.6	-2.0	4.9	1.3	3.7
(교육)	6.2	3.3	0.8	2.6	6.1	11.9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3/4분기 수출은 철강제품,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함. 9월 중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한 295.5억 달러를 기록함.
- 9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 감소한 270.6억 달러를 기록함. 3/4분기 중 소비재 수입은 확대되었으나 원유 등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수출 증가세의 지속과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의 감소 등으로 3/4분기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기대비 24.4억 달러 확대됨.
- 3/4분기 무역수지는 49.4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25.0억 달러에 비해 증가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억달러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수 출(FOB)	2,844.2	3,254.6	827.1	873.9	847.1	930.0
(증감율)	12.0	14.4	16.3	13.8	14.7	14.1
수 입(CIF)	2,612.4	3,093.8	802.2	799.1	822.7	877.5
(증감율)	16.4	18.4	21.1	13.0	13.4	14.4
무 역 수 지	231.8	160.8	25.0	74.9	24.5	52.5

자료: 한국은행, 산업자원부

4. 고용

- 9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각각 2,434만 1천, 2,362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1%, 1.3% 증가함.
- 3/4분기 실업자 수는 75만 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3% 하락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변화는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건설업에서는 감소하였음.
- 3/4분기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기대비 0.2%p 하락함.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5	2006		2007			전년 동기비 증감률
	연간	연간	4/4	1/4	2/4	3/4	
경 제 활 동 인 구	23743	23,978	24,084	23,692	24,489	24,367	1.1
(경제활동참가율)	62	62	62	61	63	62	-
취 업 자	22,856	23,151	23,303	22,841	23,698	23,610	1.3
· 농 림 어 업	1,815	1,785	1,757	1,450	1,900	1,866	△3.7
· 광 공 업	4,251	4,185	4,177	4,157	4,143	4,110	△1.2
(제 조 업)	4,234	4,167	4,157	4,138	4,126	4,093	△1.2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6,789	17,181	17,370	17,235	17,655	17,634	2.4
(건 설 업)	1,814	1,835	1,862	1,772	1,934	1,843	△0.3
실 업 자	887	827	780	851	791	756	△5.3
실업률(계절조정)	-	-	3.4	3.6	3.3	3.3	△0.2p

자료: 통계청

5. 물가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로 전월대비 0.6%, 전년 동기대비 2.3% 상승함.
 - 소비자물가는 3/4분기 중 농축산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3/4분기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2.3%, 근원물가지수⁶⁾도 2.3% 상승하여 상승세를 유지함.

6) 곡물 이외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함.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05년=100)

	2006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총 지 수	102.2 (2.2)	102.9 (2.5)	102.6 (2.2)	103.5 (2.1)	104.6 (2.4)	105.3 (0.7)
상 품	101.5 (1.5)	102.5 (2.0)	101.2 (0.8)	102.0 (0.9)	102.8 (1.5)	103.8 (1.0)
농축수산물	99.9 (△0.1)	101.8 (0.7)	99.1 (1.0)	101.9 (1.4)	100.1 (2.0)	102.3 (2.2)
공업 제품	102.0 (2.0)	102.8 (2.4)	101.9 (0.8)	102.0 (0.7)	103.6 (1.4)	104.3 (0.7)
서 비 스	102.7 (2.7)	103.2 (3.0)	103.5 (3.0)	104.4 (2.8)	105.7 (3.0)	106.1 (0.4)
집 세	100.4 (0.4)	100.4 (0.5)	101.0 (1.1)	101.6 (1.6)	102.0 (1.8)	102.4 (0.4)
공공서비스	103.5 (3.5)	104.1 (4.0)	104.7 (4.1)	105.1 (2.7)	106.3 (3.4)	107.2 (0.8)
개인서비스	103.0 (3.0)	103.5 (3.1)	103.5 (2.9)	105.0 (3.1)	106.4 (3.1)	106.7 (0.3)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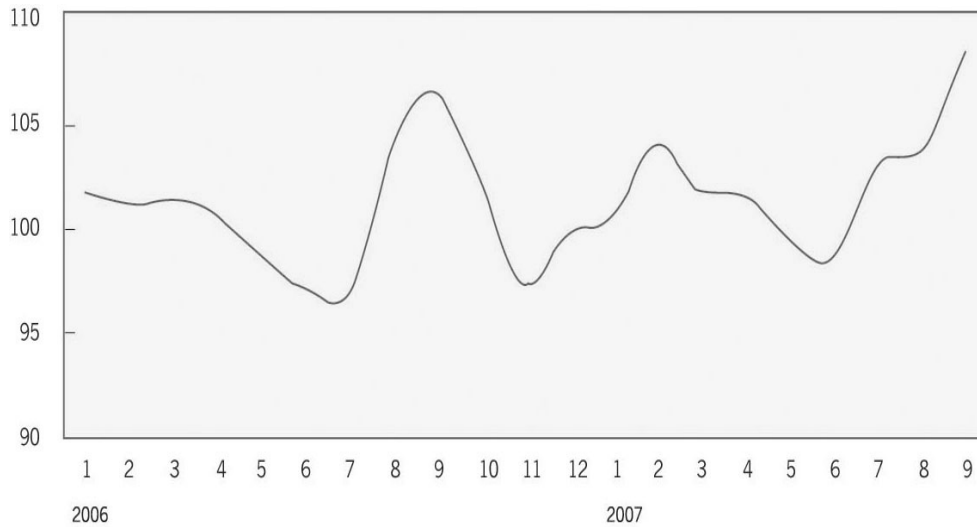
○ 주요 농축산물(쌀, 배추, 쇠고기 등 총 28품목)로 구성된 농산물체감물가지수⁷⁾는 104.7로 전년 동기 대비 2.1%, 전분기대비 5.1% 상승함.

- 수박, 토마토, 감자 등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무와 파, 양파, 상추,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전체적인 수준은 작년보다 다소 높음.

7)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 (2005년=100)



- 3/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116.6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해 1/4분기 보다 증가세가 다소 감소됨.
 - 9월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2.1% 상승함.
-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20.7로 전년 동기대비 3.6% 상승함.



품목별 생산자물가지수 (2000년=100)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4/4	1/4	2/4	3/4
총 지 수	109.9 (2.1)	112.4 (2.3)	112.7 (2.0)	112.9 (1.8)	115.5 (2.7)	116.6 (2.1)
농림수산물	121.4 (△3.7)	115.3 (△5.0)	113.4 (0.6)	121.3 (3.6)	118.5 (7.1)	120.7 (3.6)
광 산 품	127.1 (6.6)	122.8 (△3.4)	124.3 (△0.5)	127.7 (4.0)	132.3 (8.4)	133.4 (9.5)
공 산 품	108.8 (3.1)	112.0 (2.9)	112.1 (1.8)	111.4 (1.4)	115.1 (2.0)	115.6 (1.6)
전력/수도/가스	110.3 (1.2)	118.3 (7.3)	120.5 (7.7)	120.2 (3.5)	114.6 (△1.5)	122.7 (2.0)
서 비 스	109.9 (1.3)	111.9 (1.8)	112.7 (1.9)	113.6 (2.1)	114.7 (2.8)	115.1 (2.8)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율(%)

자료: 한국은행

-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8.1로 전년 동기대비 0.3% 상승함. 1/4분기의 상승세가 이어짐.
- 농수산품이 공급이 증가하였고 공산품은 국제유가 급등, 화학제품 생산설비 문제 등으로 오름세를 보임.
-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07.5로 전년 동기대비 4.2% 상승함. 참치, 오징어, 굴 가격이 공급증가로 하락하였으나 조개 가격은 크게 상승함.



수출물가지수 (2000년=100)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농림수산물	102.9 (△14.5)	100.5 (△2.3)	103.2 (△1.7)	98.2 (△5.4)	97.7 (0.7)	97.1 (△6.2)	107.5 (4.2)
공 산 품	86.6 (△6.6)	85.0 (△1.9)	87.7 (0.1)	84.4 (△2.6)	84.2 (3.4)	86.8 (2.5)	87.9 (0.3)
원 자 재	90.8 (△3.9)	91.3 (0.6)	95.3 (3.5)	91.1 (0.1)	90.8 (3.4)	94.6 (4.1)	96.1 (0.8)
자 본 재	71.9 (△11.9)	66.4 (△7.7)	66.5 (△8.2)	65.9 (△9.0)	65.2 (△3.4)	64.8 (△1.4)	66.1 (△0.6)
소 비 재	84.3 (△11.0)	79.3 (△5.9)	80.1 (△5.4)	77.9 (△7.0)	78.3 (△1.8)	78.8 (△0.9)	79.5 (△0.7)
총 지 수	86.7 (△6.7)	85.1 (△1.9)	87.8 (0.1)	84.5 (△2.6)	84.4 (1.4)	86.9 (2.4)	88.1 (0.3)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은행

- 3/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25.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함. 1/4분기의 상승세가 이어짐.
- 3/4분기 수입물가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큼. 원자재 가격은 유럽 지역 작황 부진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으로 동반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34.6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상승하였는데 이는 공급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밀, 옥수수, 대두 및 커피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수입물가지수 (2000년=100)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농림수산물	115.0 (△10.2)	116.3 (1.1)	118.3 (1.7)	122.3 (5.0)	129.3 (15.9)	129.9 (14.8)	134.6 (13.8)
광 산 품	168.9 (30.1)	197.0 (16.6)	209.5 (11.8)	185.4 (0.3)	177.8 (△5.9)	199.4 (△2.4)	213.1 (2.1)
공 산 품	95.0 (△6.4)	94.6 (△0.4)	97.0 (1.7)	94.8 (△1.2)	96.4 (4.4)	99.2 (5.3)	98.3 (1.3)
원 자 재	116.3 (5.3)	125.1 (7.5)	130.6 (7.3)	122.8 (0.9)	122.6 (1.9)	131.0 (3.6)	134.0 (2.8)
자 본 재	87.3 (△11.0)	79.1 (△9.4)	79.0 (△9.0)	77.4 (△9.9)	77.0 (△4.7)	76.6 (△3.2)	77.0 (△2.5)
소 비 재	107.3 (△4.2)	103.8 (△3.3)	105.5 (△3.7)	102.7 (△4.3)	103.7 (0.8)	104.0 (0.0)	102.8 (△2.5)
총 지 수	112.0 (2.8)	118.0 (5.3)	122.5 (5.2)	115.8 (△0.4)	115.7 (1.2)	122.5 (2.8)	125.0 (2.1)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

자료: 한국은행

6. 금융 및 외환

○ 9월 중 M2 증가율은 10% 내외로 추정됨. 가계 및 외화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법인세, 부가세 납부 등의 평잔이월효과 때문임.

○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도 10%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통화지표 증감률 (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2007		
	연간	연간	2/4	3/4	4/4	1/4	2/4	8월
M1 ¹	8.1	8.5	△2.8	△5.5	5.9	6.1	△6.7	△8내외
M2 ²	4.2	6.9	7.2	8.1	10.9	11.5	11.0	11중반
Lf ³	-	7.0	7.4	7.5	9.2	10.0	10.2	10초반
본원통화	4.3	4.1	7.9	6.1	8.4	18.0	17.0	-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3/4분기 중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9월 채권 금리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 및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 미국 FOMC⁸⁾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리 인하로 인한 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크게 상승함.

금 리 동 향

단위: %

	2006	2007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콜 금 리	4.49	4.63	4.60	4.60	4.69	4.69	4.61	4.67	4.92
CD유통수익률	4.76	4.92	4.95	4.94	4.95	5.04	5.03	5.05	5.21
회사채유통수익률	4.82	4.97	4.91	4.79	4.94	5.10	5.24	5.35	5.28

자료: 재정경제부

8)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인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하락함.
- － 9월말 환율(종가)은 915.2원으로 전년말(929.8원) 대비 14.6원 하락함(전년 말비 1.6% 절상).
-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9월말 원/엔 환율(100엔당)은 793.9원으로 추가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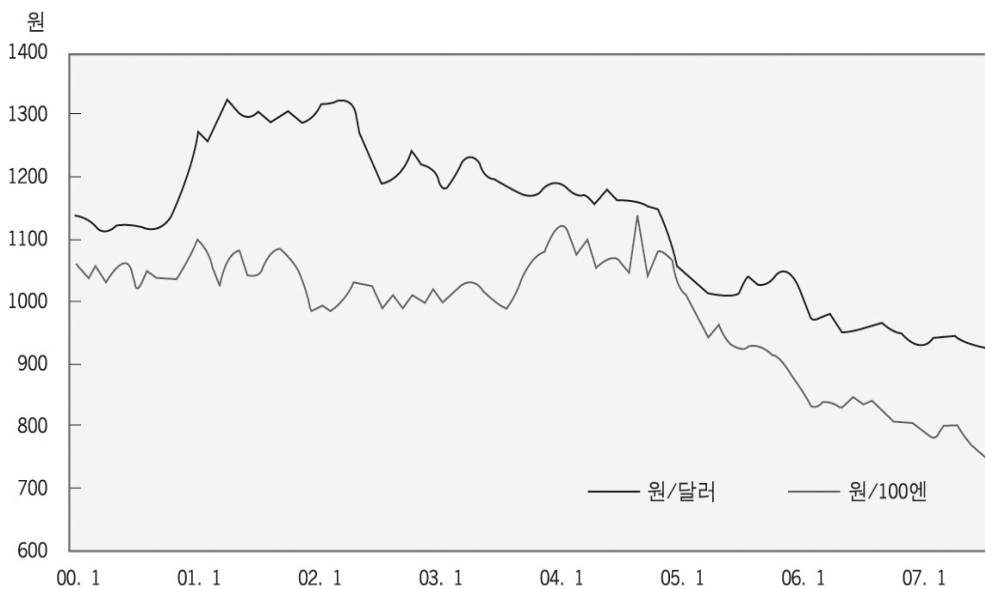
환율 동향

단위: 원(기말 기준)

	2005	2006						2007					
	-	10	11	12	1	2	3	4	5	6	7	8	9
원/달러	1,035	942	930	929	941	942	941	931	928	924	913	938	915
원/100엔	1,009	802	800	782	775	796	798	779	762	749	772	807	749

자료: 외환은행 고시환율

환율 추세





Ⅲ. 농촌경제 동향 ⁹⁾

1. 농촌물가

- 8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4.5로서, 전년 동월대비 1.9%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 1.3% 하락함.

농가판매가격지수 (2000년=100)

	가중치	2006		2007		등락률(%)	
		7월	8월	7월	8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 지 수	1000	114.1	116.7	116.0	114.5	△1.9	△1.3
곡 물	388	90.8	93.1	93.6	93.0	△0.1	△0.6
미 곡	349.6	87.5	89.8	90.4	90.4	0.7	0.0
맥 류	10.4	104.0	104.1	100.2	100.2	△3.7	0.0
잡 곡	4.2	107.3	107.3	106.5	106.6	△0.7	0.1
두 류	8.4	87.6	87.3	87.3	86.0	△1.5	△1.5
서 류	15.4	153.5	160.3	162.2	147.9	△7.7	△8.8
청 과 물	328.2	114.0	121.5	122.8	121.2	△0.2	△1.3
채 소	207.2	110.9	133.3	119.2	131.4	△1.4	10.2
과 실	121	119.2	101.4	129.1	103.7	2.3	△19.7
축 산 물	225.2	152.0	149.6	142.3	138.6	△7.4	△2.6
가 축	196.5	157.6	154.8	146.7	142.3	△8.1	△3.0
유 란	28.7	113.6	114.0	112.3	112.9	△1.0	0.5
기 타	58.6	122.6	119.9	124.4	126.0	5.1	1.3
특 작	45.3	125.6	125.9	127.8	128.4	2.0	0.5
화 훼	12.7	110.7	97.1	109.5	114.7	18.1	4.7
부산물	0.6	149.9	149.9	181.3	181.3	20.9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권오복 연구위원(obkwon@krei.re.kr), 류상모 연구원(lesamang@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곡물과 청과물 가격은 2/4분기에는 상승세였지만 3/4분기 들어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8월 기준 곡물 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1%, 청과물 가격은 0.2% 하락함.
 - 곡물 가격은 미곡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청과물중 채소는 2/4분기의 가격 상승에서 반전하여 전년 대비 1.4% 하락함. 반면, 2/4분기에 전년대비 크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던 과실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함.
- 8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2.0% 상승한 131.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감.
 - 가계용품은 교육비(5.8%), 피복비(3.3%), 교통통신(3.2%) 등이 상승하여 전년대비 2.8% 상승함.
 - 농업용품은 사료(12.8%), 비료(6.7%), 영농자재(3.8) 등이 상승하여 전대비 0.8% 상승함.
 - 농촌임료금은 8월 들어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하여 작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함.



농가구입가격지수 (2000년=100)

	가중치	2006		2007		등락률(%)	
		7월	8월	7월	8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지수	1000	128.0	128.9	131.5	131.5	2.0	0.0
가계용품	559.3	127.4	128.7	132.2	132.3	2.8	0.1
식료품	100.7	132.4	138.5	140.9	140.9	1.7	0.0
피복및	27.6	113.3	113.3	117.0	117.0	3.3	0.0
가구집기및	42.2	94.2	94.3	91.8	92.1	△2.3	0.3
광열수도	50.0	149.3	150.0	150.9	152.2	1.5	0.9
보건의료	79.5	123.6	123.6	126.0	126.0	1.9	0.0
교육	111.1	143.3	143.6	152.0	152.0	5.8	0.0
교양오락	7.9	105.0	105.5	106.2	106.3	0.8	0.1
교통통신	109.4	117.3	117.3	121.3	121.1	3.2	△0.2
기타잡비	30.9	128.0	128.0	132.0	132.7	3.1	0.5
농업용품	359.4	130.2	130.2	131.8	131.7	0.8	△0.1
종자	19.6	101.1	101.1	101.2	101.2	0.1	0.0
비료	34.2	147.4	147.4	157.3	157.3	6.7	0.0
농약	39.8	89.7	89.7	90.1	90.1	0.4	0.0
농기구	93.3	108.8	108.8	111.6	111.6	2.6	0.0
영농광열비	28.0	169.6	169.6	159.9	165.1	△2.3	3.3
가축	45.8	202.9	202.9	177.7	174.1	△13.9	△2.0
사료	63.4	121.9	121.9	137.5	137.5	12.8	0.0
영농자재	35.3	121.5	121.5	132.2	132.2	3.8	0.0
농촌임료금	81.3	122.3	122.3	125.5	125.6	2.5	0.1
농업노동임금	36.8	124.8	124.8	128.0	128.3	2.5	0.2
기타임금	2.2	128.5	128.5	127.0	127.2	△1.2	0.2
도정료	7.4	117.8	117.8	121.6	121.6	3.2	0.0
농기계임차료	34.9	120.3	120.3	123.6	123.6	2.7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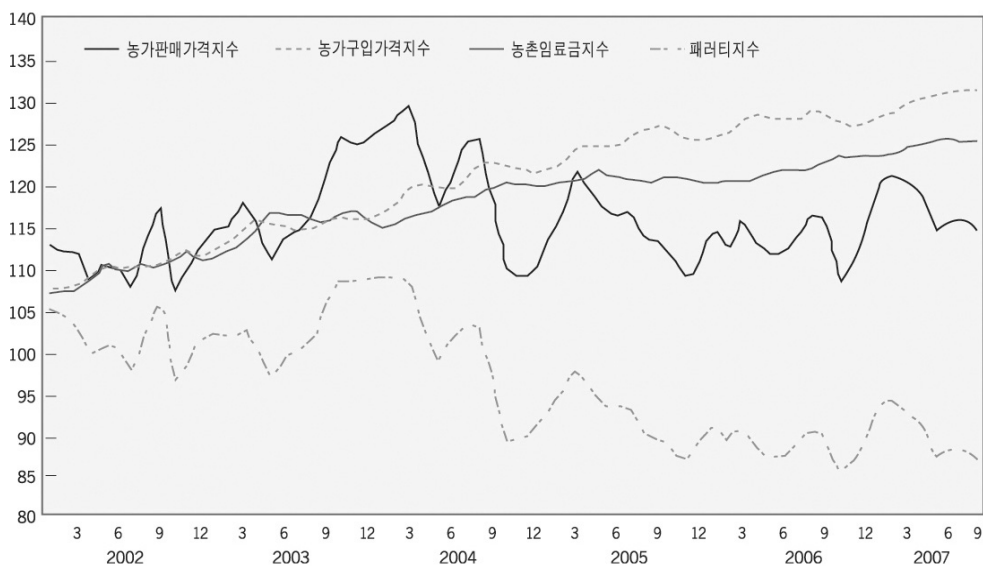
- 8월 농가교역조건(패리티 지수)은 87.1로서 전년대비 3.8%p, 전월대비 1.3%p 낮아짐.
- － 작년 4/4분기 이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해 농가교역조건이 다소 악화됨.

농가교역조건 변화

	2006		2007		등락률(%p)	
	7월	8월	7월	8월	전년동월	전월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14.1	116.7	116.0	114.5	△1.9	△1.3
농가구입가격지수(B)	128.0	128.9	131.5	131.5	2.0	0.0
농가교역조건(A/B*100)	89.1	90.5	88.2	87.1	△3.8	△1.3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8월 농림업 취업자수는 188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함. 1/4분기 감소하였던 취업자수는 2/4분기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산업별로는 농업 및 임업은 전년 동기대비 3.3%, 어업 15.0%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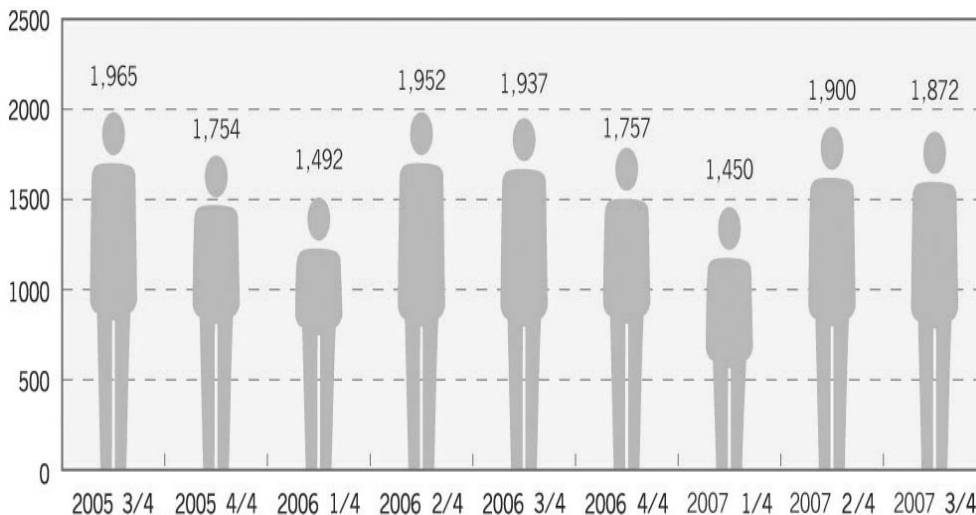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6		2007		증감률(%)	
		3/4분기	9월	3/4분기	9월	전년 동기대비	전월대비
경제활동 인구		24,113	24,096	24,367	24,341	1.0	0.5
취업자	전산업	23,314	23,330	23,610	23,622	1.2	0.7
	농림어업	1,937	1,929	1,872	1,885	△2.3	1.1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2007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1,781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함.
- 신선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김치, 인삼, 화훼 및 과실류의 수출호조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374백만 달러임.
- 가공농림축산물 수출액은 면류, 소스류, 과자류, 연초류의 수출증가로 전년대비 9.6%증가한 1,407백만 달러임.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6. 1~9	2007. 1~9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2,304	1,636	1,781	8.8
농 산 물	2,008	2,425	1,579	10.7
축 산 물	172	126	116	△8.0
임 산 물	124	85	86	1.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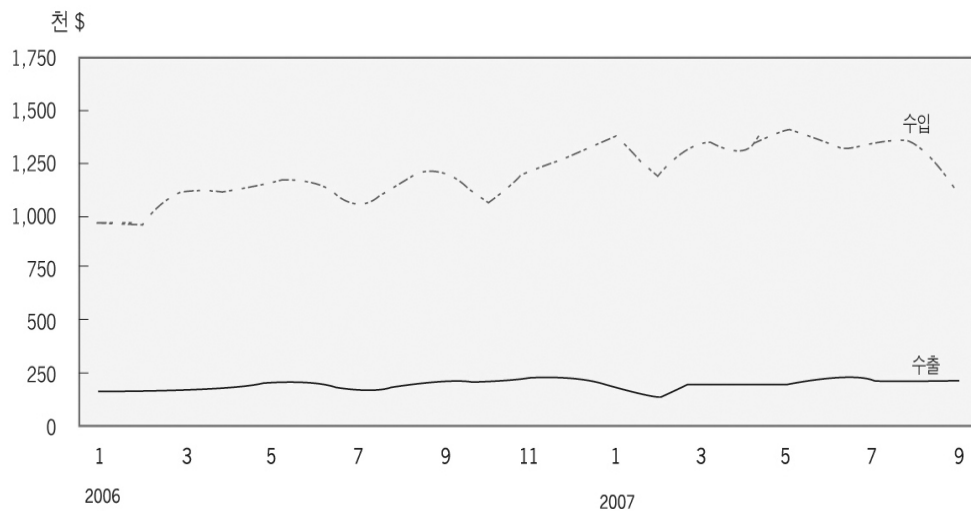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5	2006	2006 1~9월	2007 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138.5	133.6	93.6	86.7	△7.4
김 치	93.0	70.3	52.4	53.6	2.3
인 삼	82.5	88.6	56.2	58.6	4.3
화 훼	52.1	40.4	27.9	43.3	55.2
과 실	120.9	98.4	53.0	78.1	47.4
돼지고기	34.3	23.9	18.8	4.8	△74.5
가 금 육	9.5	8.5	5.9	6.1	34.
산림부산물	77.4	71.8	44.3	42.5	△4.1
가공식품	1,540.7	1,716.4	1,243.3	1,363.1	9.6
목 재 류	72.6	52.2	40.5	43.7	7.9
합 계	2,221.5	2,304.4	1,635.9	1,780.5	8.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7년 들어 농축산물 수출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수입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농축산물 수출입 추이





4.2. 수입동향

- 2007년 1~9월 농림축산물 수입은 총 118억 5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6. 1~9월	2007. 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13,327	9,781	11,854	21.2
농 산 물	8,117	6,003	7,324	22.0
축 산 물	2,749	1,974	2,391	21.1
임 산 물	2,462	1,805	2,139	18.5

자료: 농림부

- 주요 품목의 1~9월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옥수수의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7.3% 증가하였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3%, 22.5% 증가하였음.

주요 품목의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5	2006	2006. 1~9월	2007. 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 수 수	1,220	1,271	905	1,333	47.3
밀	675	669	481	595	23.7
대 두	400	332	234	306	30.7
쇠 고 기	735	876	622	766	23.3
돼지고기	620	778	560	686	22.5
닭 고 기	113	118	84	86	2.0

자료: 농림부



- 9월까지 포도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43.2%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파인애플, 바나나의 수입도 각각 14.9%, 18.4% 증가하였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렌지 수입량이 감소하여 그 밖에 다른 열대과일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4	2005	2006	2006. 1~9월	2007. 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37	120	123	149	157	5.5
키위	45	52	63	55	59	7.1
포도	17	24	33	51	72	43.2
파인애플	24	35	43	45	51	14.9
바나나	87	115	145	116	138	18.4
레몬	5	6	8	6	8	43.6

자료: 한국무역협회

4.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7년 1~9월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14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하였음. 물량 기준으로는 17.9% 증가하여 1/4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신선농림축산물은 채소, 김치, 인삼 등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난초와 과실류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9.4% 증가하였음.
 - 난초는 설명절 특수로 인한 중국 내 수요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52.8% 증가하였음. 인삼류는 홍삼의 수출급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5% 감소함.



- 가공농림축산물은 과자류와 목재류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당류의 수출이 크게 신장되어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음.

주요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5	2006	2006 1~9월	2007 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과 자 류	38.5	38.5	28.2	29.9	6.1
당 류	37.1	52.0	34.7	38.6	33.7
인 삼	4.8	7.2	6.4	2.6	△59.5
화 훼 류	16.0	10.3	7.9	19.9	46.0
목 재 류	14.3	10.2	9.3	5.4	△41.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6. 1~9월		2007. 1~9월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	182	167	214	25.0	17.9
농 산 물	115	153	153	190	32.8	24.2
축 산 물	0.6	3	1.6	5	163.1	49.2
임 산 물	17	25	12	19	△31.4	△25.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7년 1~9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63.9%, 금액기준으로 51.7% 증가함. 이는 작년보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함.



대중국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06. 1~9월		2007. 1~9월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4,001	1,539	6,560	2,335	63.9	51.7
농 산 물	3,289	1,075	5,900	1,790	79.4	66.5
축 산 물	34	66	36	74	4.5	12.5
임 산 물	677	398	624	471	△7.9	△18.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동향

- 2007년 1~9월 대일 농산물 수출은 44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4% 감소하였음. 환율하락지속으로 소주를 비롯한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이 감소하였음.
- 신선농림축산물은 채소, 인삼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화훼, 과일류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김치는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OEM수출업체들의 계약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수출회복세를 보임.
- 가공농림축산물 수출은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악화로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함.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06	2006 1~9월	2007 1~9월	비 중 (%)	전년동기비 증감률(%)
채 소	87.0	61.5	53.5	61.7	△13.0
김 치	62.6	46.9	47.3	88.2	0.9
인 삼	29.2	20.5	18.5	31.6	△9.8
화 휘	26.8	17.4	20.4	47.1	17.2
과 실	14.2	9.2	15.0	19.2	63.0
돼지고기	0.2	0.1	0.2	4.2	-
가금육(닭, 오리)	5.2	3.5	1.8	29.5	48.6
산림부산물	21.0	10.2	10.8	25.4	5.9
가공식품	384.3	283.4	265.9	19.5	△6.2
목 재 류	20.6	15.4	14.0	32.0	△9.1
합 계	651.1	468.1	447.4	25.1	△4.4

주: 비중은 전체 수출 중 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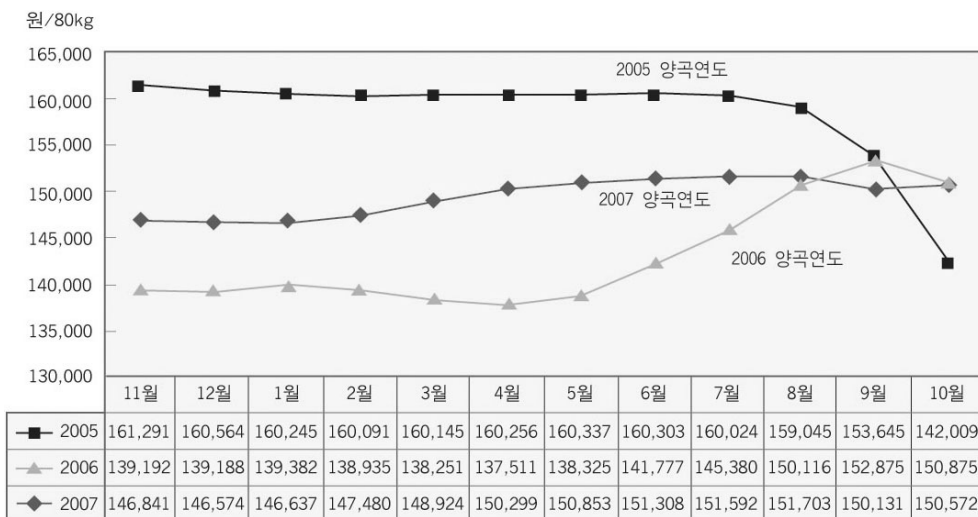


I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1.1 쌀¹⁰⁾

산지 정곡가격 동향



주: 2007양곡연도 10월 가격은 10.5~20까지 평균가격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7년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450만 2천톤으로 집계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007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95만 ha로 감소율이 둔화된 반면, 논벼 단수가 476kg/10a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여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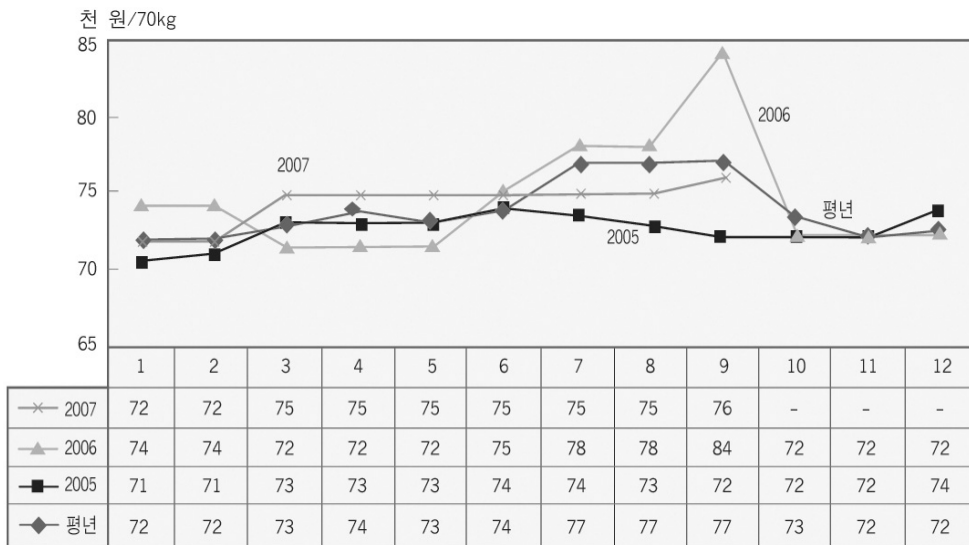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최익창(cic@krei.re.kr), 박미성(msp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8월부터 등숙기까지 이어진 잦은 비와 일조시간 부족으로 낟알 형성 부진과 쭉정이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병해충 발생이 전년에 비해 늘었음.
- 2007양곡연도 1월 이후 산지 정곡가격은 월평균 0.5% 지속적인 상승세로 8월에 15만 1,703원/80kg까지 상승하였으나 9월에 들어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8% 낮은 15만 131원/80kg 수준임.
- 그러나 신곡 가격 조사가 시작된 10월 5일 이후 산지 정곡가격은 하락 폭이 크게 둔화되어 10월 20일까지 평균가격은 15만 572원/80kg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1.2. 보 리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주: 평년은 2002~06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07년도 보리(쌀보리) 재배면적은 2만 4,374ha로 전년도 2만 5,423ha에 비해 4.1%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11만 3,000톤으로 전년도 9만 5,000톤에 비해 18.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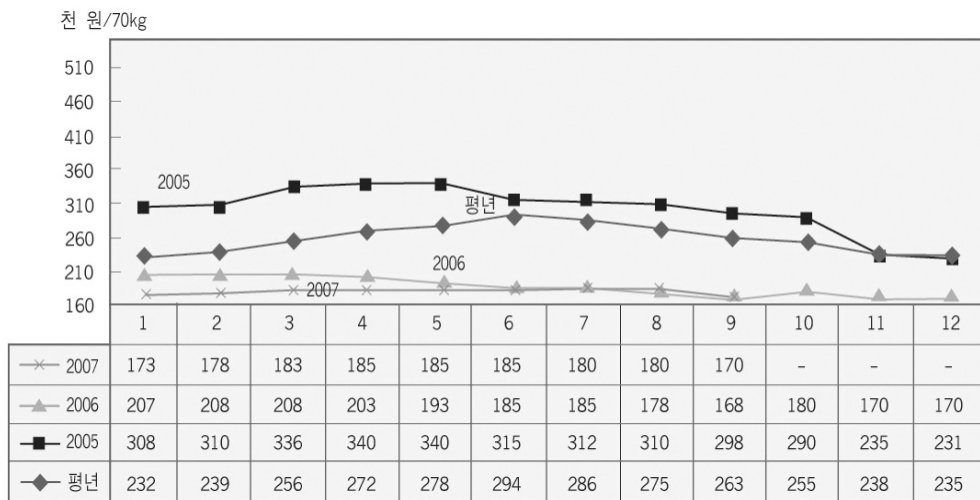


- 수매약정물량 감축과 수매가 동결로 쌀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함. 쌀보리 수매가격은 40kg 기준 34,260원(1등급)으로 작년보다 4% 낮음.
- 보리(쌀보리, 상품기준) 평균 도매가격은 금년 3월 상승하여 7만 5천원을 유지하다가 9월 7만 6천원으로 상승하였음. 평년대비 1.5% 낮고, 전년 동기보다 9.5% 낮은 가격에 거래됨.

1.3. 대 두

- 2007년도 콩 재배면적은 9만 248ha로 전년도 10만 5,421ha에 비해 14.4%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5만 6,404톤으로 전년도 18만 3,338톤에 비해 14.7% 감소함.
- 하락세를 지속해온 대두 평균 도매가격(국산 백태, 상품기준)은 2006년 4/4분기 반등하여 3/4분기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9월 가격은 평년보다는 35.3% 낮고 전년 동기보다 1.2% 높은 17만원/70kg임.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주: 평년은 2002~06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4. 사료곡물

- 2007년 1~9월중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651만 톤으로 전년 동기의 501만 4,000톤에 비해 29.8% 증가하였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57.1% 증가함. 사료용 밀 수입량은 101만 8,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감소하였음. 그러나 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은 20.9% 증가하였음.

주요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2005	2006	2006.1~9월	2007.1~9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수수	수입량	천톤	6,627	6,757	5,014	6,510	29.8
	수입액	백만US\$	928	970	905	1,332	47.3
밀	수입량	천톤	1,290	1,280	1,018	812	△20.3
	수입액	백만US\$	184	179	138	166	20.9
계	수입량	천톤	7,917	8,037	6,032	7,322	21.4
	수입액	백만US\$	1,112	1,149	1,043	1,498	43.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 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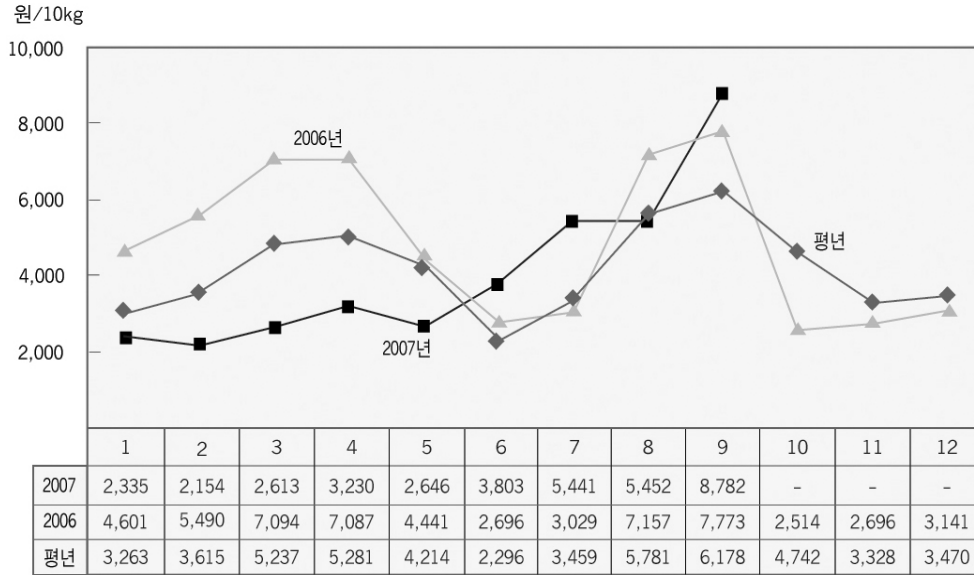
2.1. 배 추

- 배추 3/4분기 상품 10kg당 평균도매가격은 6,560원(중품 4,74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평년 동기보다 28% 높았음.
- 이는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잦은 강우로 작황도 나빠져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1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박기환 부연구위원(kihwan@krei.re.kr), 송성환(song9370@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윤종열(fsyoon76@krei.re.kr), 장정경(jj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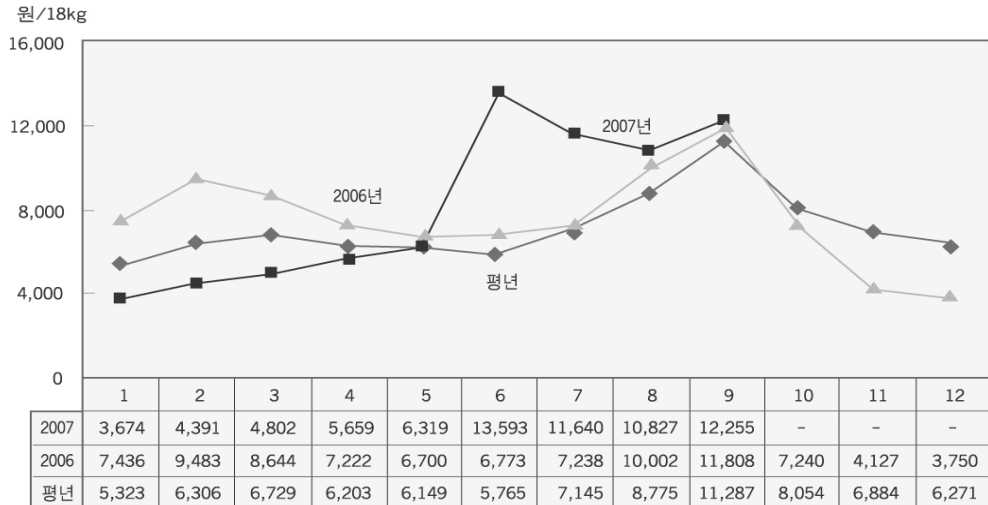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표본농가 조사결과,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1% 감소한 1만 2,800ha 내외로 조사되었으나, 평년 재배면적(1만 2,582ha)보다는 2% 많은 수준임.
- 금년 가을배추 단수는 정식기 잦은 비로 생육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은 작년보다 16%, 평년보다 3%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김장철(11~12월) 배추 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금년과 같은 공급과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무 3/4분기 상품 18kg당 평균도매가격은 1만 1,570원(중품 9,24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평년 동기보다 28% 높았음.
- 이는 고랭지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잦은 강우로 생육도 부진하여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표본농가 조사결과,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9% 감소한 8,770ha 내외로 조사됨.
- 금년 가을무 단수는 파종기 잦은 비로 생육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가을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김장철(11~12월) 무 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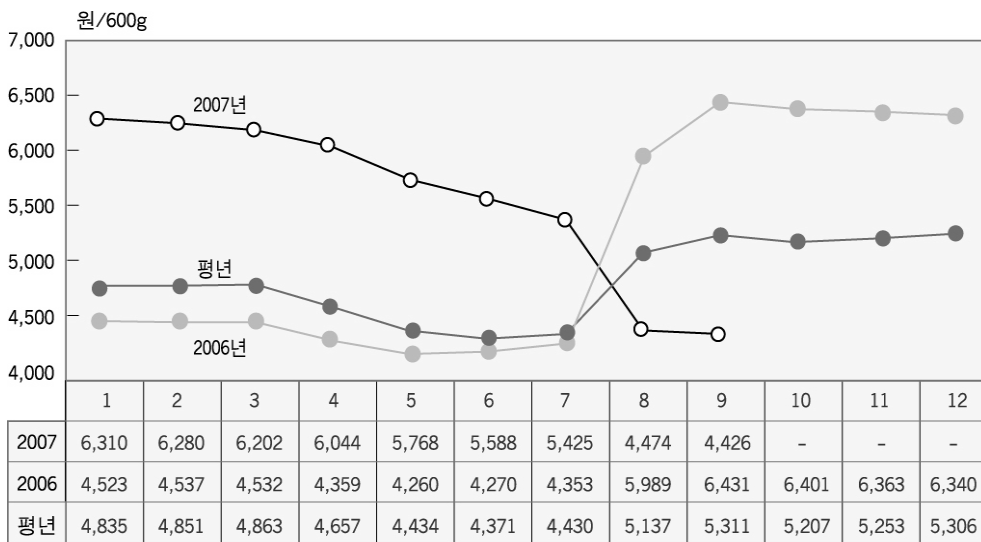


- 제주도 월동무 재배면적은 태풍 피해 전에는 작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태풍피해로 감자, 당근 재배농가가 월동무로 작목 전환할 것으로 보여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3. 고 추

- 화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도매가격은 4,78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 평년 동기보다 4% 낮은 수준이었음. 양건 3/4분기 상품 600g당 평균도매가격은 6,0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평년 동기보다 2%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2007년산 고추 생산량이 병해충 피해가 심했던 작년보다 많기 때문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1년 8월~2006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산 확정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3%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는 9% 감소한 5만 4,876ha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금년산 고추 단수는 작황호조로 9월 이전에는 작년보다 20% 증가하였으나, 9월 이후 단수는 기상악화로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시기별 고추 단수를 고려한 금년산 전체 고추 단수는 작년보다 15%, 평년보다는 2% 증가한 10a당 253kg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확정면적에 예상단수를 적용할 경우 금년산 고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19% 많으나, 평년보다 7% 적은 13만 9,000톤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 9월 건고추 수입량은 170톤으로 작년 동기(334톤)보다 49% 적었고, 고추 관련품목의 수입량을 건고추로 환산한 중량도 4,178톤으로 작년 동기(4,528톤)보다 8% 적었음. 따라서 전체 9월 고추 수입량은 작년 동기(4,863톤)보다 11% 적은 4,348톤이었음.
- 9월말 현재 고추 정부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56% 적은 1,260톤이며, 금년 정부수입물량(TRQ) 중 잔여물량 1,533톤은 11~12월에 도입할 계획임.
- 중국의 건고추 9월 톤당 평균거래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52% 높은 1만 3,100원(1,700달러) 수준이었음. 9월말 현재 민간수입 가능가격은 600g당 5,200원, 도매가격은 5,700원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9% 높은 것으로 추정됨. 냉동고추 민간수입 가능가격은 600g당 320원, 가공 후 국내 판매원가는 2,800원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40%, 22% 높은 것으로 추정됨.
- 금년산 중국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증가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작황이 나빠지고 있어 고추 생산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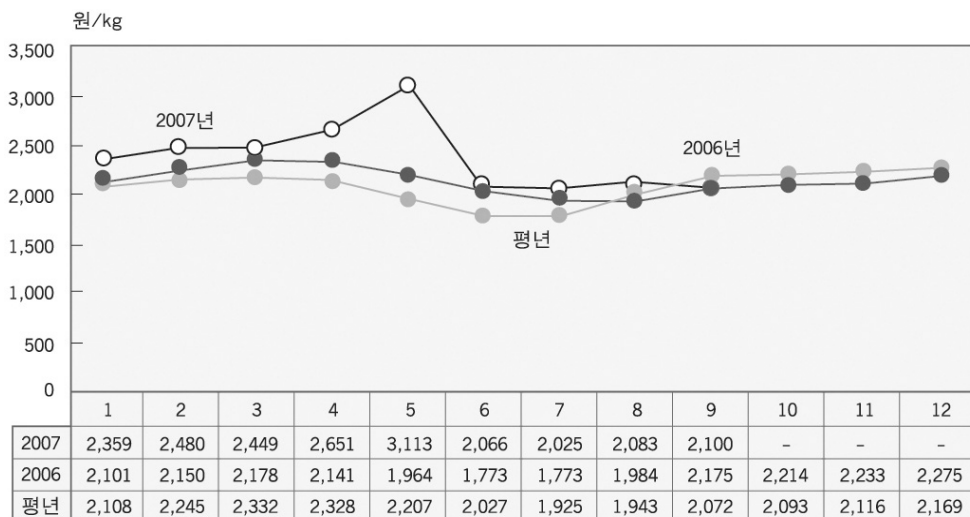


- 고추 10월 수입량은 국내 가격이 낮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추 후기 작황 악화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시세는 점차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건고추(화건) 10월 상품 600g당 도매가격은 9월보다 강보합세인 4,7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2.4. 마늘

- 마늘 3/4분기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2,070원(난지형 기준)으로 단경기와 수확기가 겹치는 2/4분기보다 21% 낮으나,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5% 높은 수준임.
- 이는 저장업체의 수확기 저장수요 증가로 입고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34만 8,000톤으로 작년산(33만 1,000톤)보다 5% 많은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확정 발표하였음.



- 9월 중국 마늘 산지가격은 산동성 마늘 저장량이 작년보다 20% 많아 톤당 340(작년 494달러)달러로 낮게 형성되고 있음.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수출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대한민국 수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음.
- 마늘 9월 수입량은 깐마늘이 737톤, 통마늘 500톤(전량 MMA), 냉동마늘 1,810톤, 초산조제마늘 643톤이며, 신선마늘로 환산할 경우 4,492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감소하였음.
- 9월 중국산 깐마늘 kg당 국내 도매가격은 2,800원, 냉동마늘은 1,060원으로 추정됨.
- 저장업체의 9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재고량은 9%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마늘 입고가격이 작년보다 높았으나, 기대만큼 시장가격 상승이 없어 출고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마늘 가격이 작년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고량이 작년보다 많아 4/4분기 가격도 현 수준에서 약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금년 마늘 수확기 가격이 좋았기 때문임.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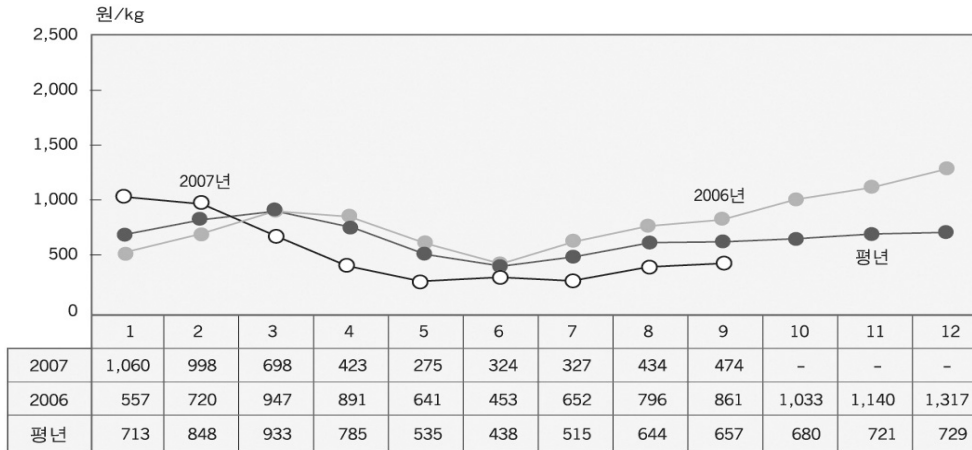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지형	△3.5	△11.8	0.0	-	△10.2	-	-	△9.5
난지형	-	11.7	1.0	4.2	10.8	5.9	2.2	4.8
전체	△3.5	△2.3	0.8	4.2	△4.2	5.9	2.2	1.8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5일 표본농가 조사치.



2.5. 양 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양파 3/4분기 상품 kg당 평균도매가격은 410원으로 2/4분기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작년(770원)과 평년(605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이는 금년 수확기 양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출하량이 많았고, 양파 저장량도 작년과 평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121만 1,300톤으로 작년산(89만톤)보다 36% 많은 것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확정 발표하였음. 품종별로 조생종은 47% 증가한 20만 5,000톤, 중만생종은 34% 증가한 100만 8,000톤임.
- 9월 중국 양파 저온저장량은 작년보다 10% 감소하였으나, 가저장량이 많아 산지가격은 톤당 78달러로 작년(247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 그러나 국내 양파 가격 하락으로 9월 수입량은 신선·냉장양파 141톤, 건조양파 45톤, 냉동양파 112톤이며, 신선양파로 환산할 경우 898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64% 감소하였음.



- 10월 수입량도 중국 양파 산지가격이 약세이나, 국내 가격이 낮아 작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저장업체의 9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8% 감소하였으며, 재고량은 12%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양파 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저장업체들이 출고를 관망하고 있기 때문임.
- 국내 양파 가격이 크게 낮아 수입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저장량이 작년보다 많아 4/4분기 가격은 현 수준에서 저장비용을 감안한 정도의 약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저온저장 양파의 부패율이 작년보다 빠른 상황이므로 향후 부패 속도에 따라 연말에는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있음.
-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금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조생종 양파의 경우 전남, 제주지역의 태풍 피해로 재배의향면적이 23%나 감소하였음.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조생종	-	△25.1	-	-	△18.9	△23.0
중만생종	△9.7	△3.3	△7.9	△9.8	△0.9	△5.5
전체	△9.7	△8.0	△7.9	△9.8	△15.2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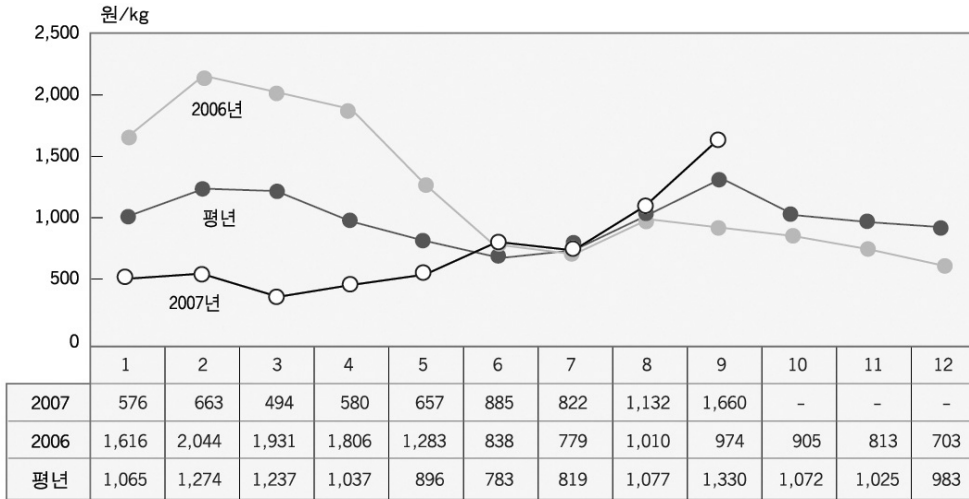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5일 표본농가 조사치.

2.6. 대 파

- 대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kg당 1,205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평년 동기보다 12%, 금년 2/4분기보다 70%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잦은 강우로 인한 출하지연과 생육불량으로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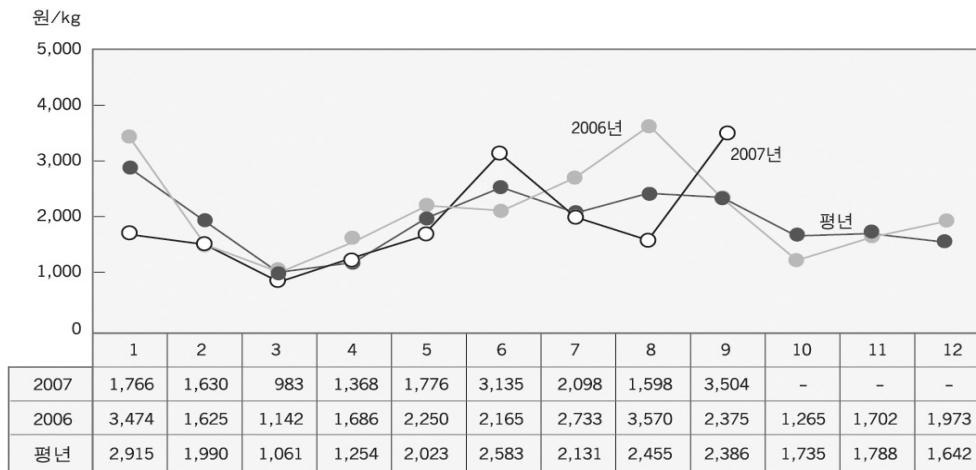
- 대파 10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작년 동기와 비슷하나, 생육상황 악화로 단수가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5%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대파 10월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높은 1,8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대파 11월 출하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생육 상황이 다소 호전되더라도 11월 가격은 강세를 떨 것으로 전망됨.
-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에 그쳐 작황 호조시 출하량 증가로 12월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월동대파 재배의향면적은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대파 가격 강세로 추가정식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출하기 가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식 확대 자제가 필요함.



2.7. 쪽 파

- 쪽파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kg당 2,400원으로 금년 2/4분기보다 15%, 평년 동기보다 3% 높으나, 작년 동기보다 17% 낮은 수준임.
- 쪽파 7~8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낮았으나, 9월은 잦은 강우로 인한 파종지연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크게 높았음.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쪽파 10월 출하면적은 잦은 비로 파종이 이루어지지 못해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하고, 단수도 4% 감소하여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1% 적을 것으로 전망됨.
- 쪽파 10월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은 3,500원 내외의 초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쪽파 11월 출하예상면적은 파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 동기보다 6% 감소하여 11월 가격도 작황이 크게 좋아 지지 않는 한, 작년 동기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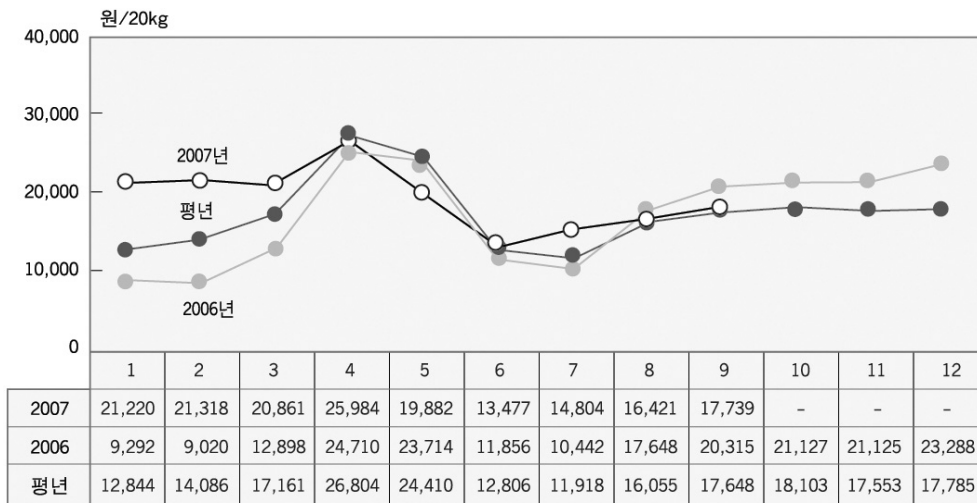


- 한편, 작년 구쪽파 가격 하락으로 제주도 구쪽파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 무안과 경북 예천의 재배면적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내년 쪽파 중구가격은 금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8. 감 자

- 수미 3/4분기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1만 6,32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7%, 작년 동기보다 1% 상승하였음. 이는 봄감자와 준고랭지감자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임.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고랭지감자 10월 출하면적과 단수는 호우피해가 컸던 작년 동기보다 각각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랭지감자 10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8% 많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저장 노지봄감자 10월 출하량은 수확기 가뭄으로 작년보다 4%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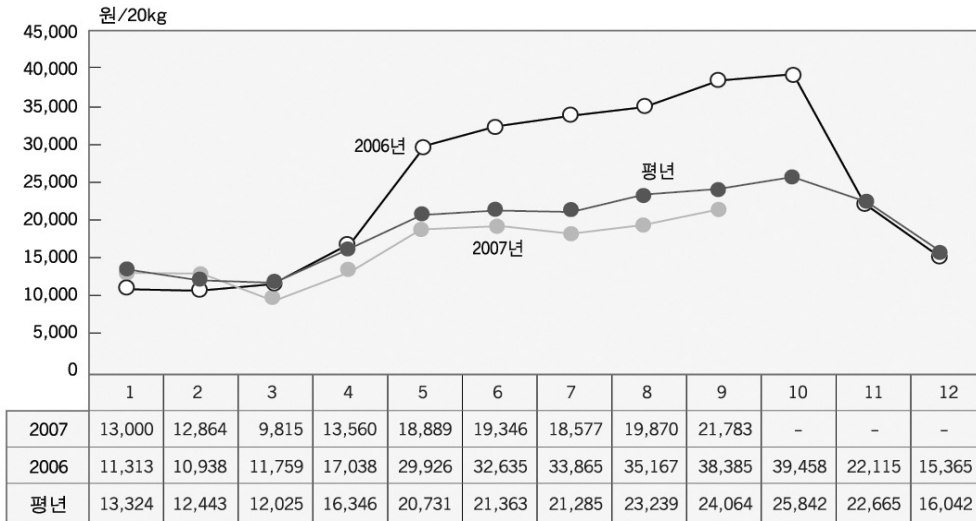
- 저장 노지봄감자와 고랭지감자 출하량을 고려한 10월 전체 수미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7% 많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수미 10월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15% 낮으나, 9월보다는 강보합세인 1만 8,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감자(대지) 재배면적은 당초 작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태풍 피해로 침수 또는 유실된 면적이 많아 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더욱이 침수된 면적의 감자 작황도 크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가을감자 생산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하기 도매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재파종이 불가능한 가을감자 면적 중 일정부분은 월동무 등으로 작목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08년산 겨울감자(대지) 재배면적은 금년산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최근의 태풍 피해로 가을감자 출하기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파종시기가 다가올수록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 감소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큼.

2.9. 당 근

- 당근 3/4분기 상품 20kg당 평균도매가격은 2만 8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평년 동기보다는 12% 낮은 수준임.
- 이는 봄당근 저장물량이 작년보다 많았던 데다 고랭지당근 출하면적도 호우피해가 컸던 작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당근 도매가격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당근 10월 출하면적은 주출하지역의 고랭지당근 출하면적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단수는 지속된 강우로 작황이 나빠져 작년 동기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10월 산지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당근 10월 수입물량은 내몽골지역 고랭지당근과 산동성 가을당근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당근 10월 전체 출하량은 수입량과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나, 10월 중순에 출하완료된 저장물량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9%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당근 10월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4% 낮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16% 높은 3만원 내외로 전망됨.
- 당근 11월 출하면적은 가을당근 재배면적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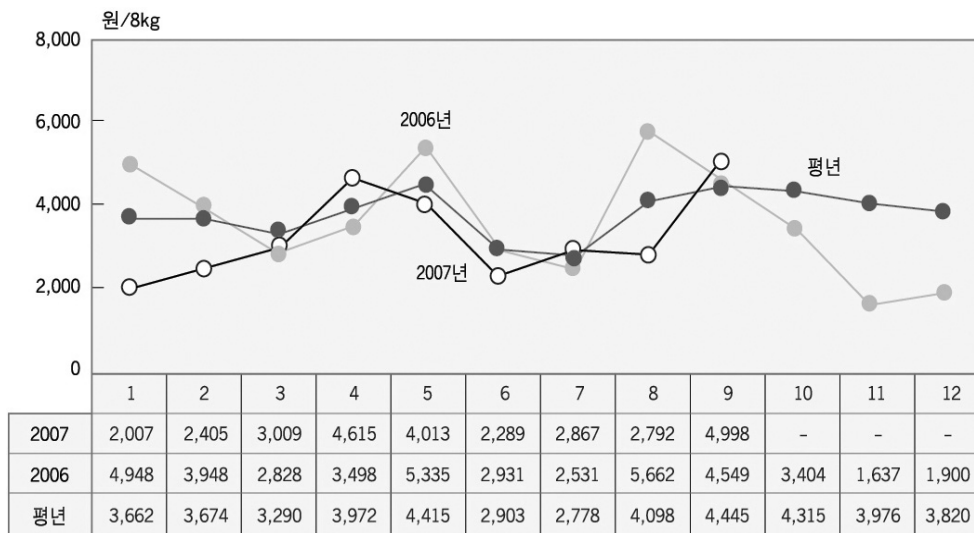


-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당초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태풍 피해로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피해면적은 재파종이 불가능하여 상당 부분 월동무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남

2.10. 양배추

- 양배추 3/4분기 상품 8kg당 평균도매가격은 3,5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평년보다 6% 낮은 수준임.
- 양배추 7~8월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동기보다 33% 낮았으나, 9월은 18% 높은 수준임. 이는 잦은 강우로 작황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양배추 도매가격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2002년 1월~2006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양배추 10월 출하면적은 지속된 가격 약세로 고랭지양배추 2기작과 가을 양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작년 동기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이 크게 좋지 않아 단수도 17%나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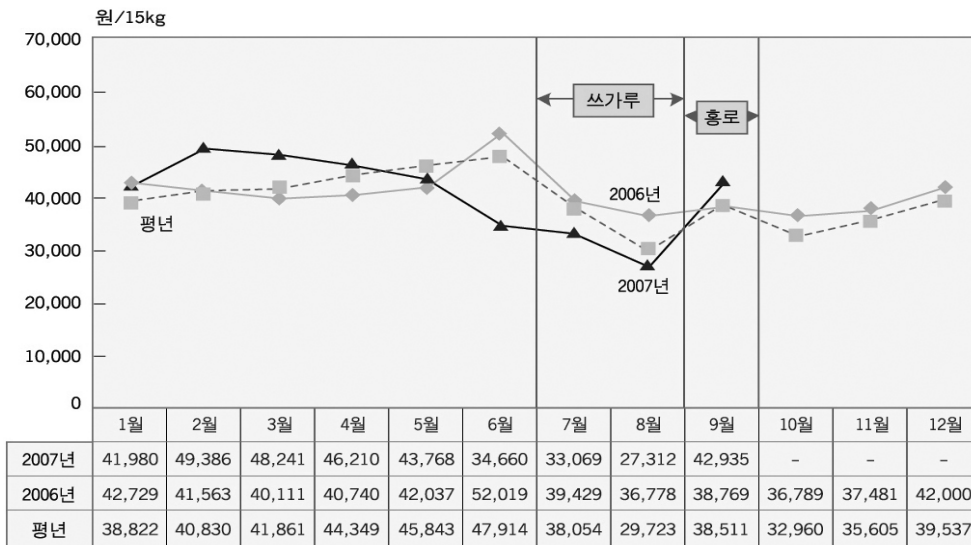
- 양배추 10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21% 적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양배추 10월 상품 8kg당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크게 높은 8,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양배추 11월 출하량도 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작황도 나빠 작년 동기보다 크게 적을 것으로 전망됨.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당초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태풍 피해로 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조생종 양배추 피해가 커 12월~내년 2월 출하량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3. 과일¹²⁾

3.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 (후지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품종 기준임. 평년은 2001. 1~2006.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중순부터 출하된 쓰가루 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3,000원(중품 2만 6,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 낮았음. 8월 쓰가루 15kg당 /가격은 2만 7,000원으로 작년보다 26% 낮았음. 이는 공급량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품질이 좋지 않고, 복숭아 등 대체과일류 공급량이 증가했기 때문임.

○ 8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된 홍로(상품 15kg)의 9월 가격은 4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11%, 평년보다 14% 높았음.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한재환(jhhan@krei.re.kr), 천인석(chunis94@krei.re.kr), 안명옥(moa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이유는 추석(9/26) 수요가 있었지만 잦은 강우로 인해 출하가 지연되고 공급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 올해 사과 착과량이 많았고 생육상황도 양호함.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5% 증가하고 성목단수도 2% 증가하여, 생산량은 7% 증가한 44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로는 충청 3%, 경북 6%, 경남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사과 생산량 추정

단위: 천톤

	충청	경북	경남	전체
'06년산	82	255	43	408
'07년산	85	270	50	435
증감률(%)	2.7	5.9	14.5	6.8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27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후지의 크기와 색택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당도는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조사됨.
- 7~9월 사과 공급량은 작년 동기대비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10월 공급량은 작년보다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11월 이후 공급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한 2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사과 공급량 추정

단위: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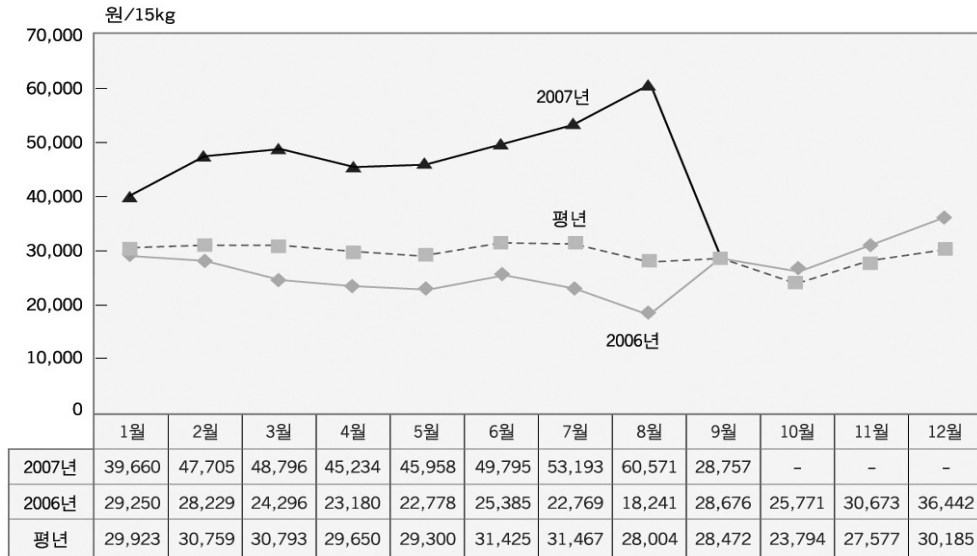
	생산량 (A)	수출량 (B)	공급량		
			7~9월 (C)	10월 (D)	11월 이후 (A-B-C-D)
'06년산	408	1.0	123	49	235
'07년산	435	2.3	132	50	250
증감률	6.8	126.7	7.6	3.4	6.5

주: 시기별 공급량 및 '07년산 생산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2. 배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주: 평년은 2002. 1~2006.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산 신고는 9월 초순경부터 출하되기 시작함. 첫 출하시 가격(상품 15kg)은 3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2만 7,000원) 33% 높았음. 하지만, 9월 신고 반입량이 늘어나고 당도도 좋지 않아 9월 신고 가격(상품 15kg)은 2만 9,000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 올해 배 착과 및 생육상황은 전국적으로 양호함. 배 성목면적은 작년과 비슷하나 성목단수가 4% 증가하여 올해 생산량은 4% 증가한 45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로는 경기 3%, 충청 8%, 호남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영남은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 배 생산량 추정

단위: 천톤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06년산	77	113	125	111	431
'07년산	80	121	135	110	450
증감률(%)	3.4	7.5	7.9	-1.8	4.4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27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신고의 품질은 작년처럼 크기와 모양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도는 작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조사됨.
- 배 9월 공급량은 작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10월 배 공급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1월 이후 공급량은 작년보다 2% 증가한 22만 2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배 공급량 추정

단위: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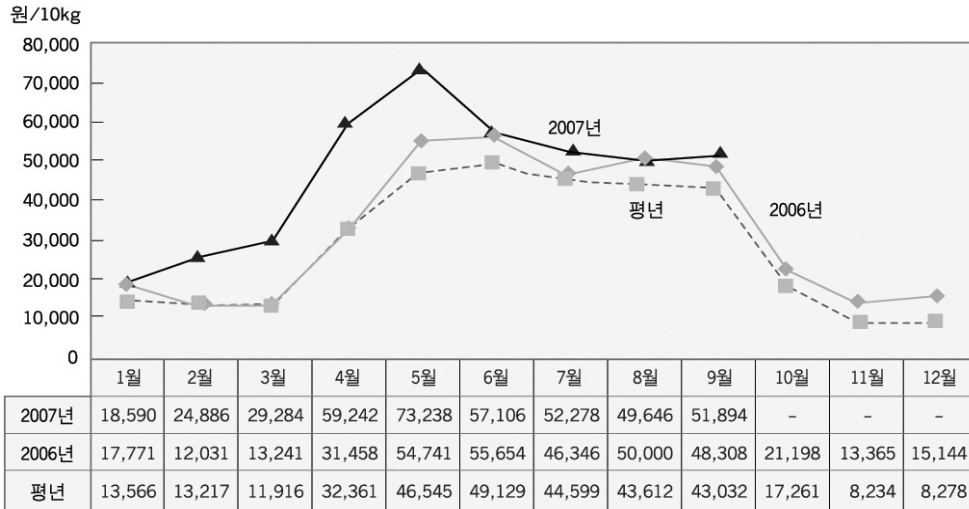
	생산량 (A)	수출량 (B)	공급량		
			9월 (C)	10월 (D)	11월 이후 (A-B-C-D)
'06년산	431	16.3	128	69	218
'07년산	450	22.0	142	64	222
증감률	4.4	35.1	10.9	-7.2	1.9

주: 시기별 공급량 및 '07년산 생산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3. 감귤

감귤 도매가격 (상품)



주: 4~9월까지는 월동 및 하우스온주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평년은 2001. 5~2006. 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하우스온주(상품 5kg)가격은 전월보다 8% 낮지만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2만 6,000원이었음. 8월 가격은 전월보다 5% 낮은 2만 5,000원, 9월은 전월보다 5%, 작년보다 7% 높은 2만 5,900원이었음.
- 노지온주감귤의 성목단수는 작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2차 생리낙과가 거의 되지 않고 기상호조로 비대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주요 요인임.
- 노지온주감귤의 성목면적이 작년과 비슷하고, 성목단수는 17% 증가하여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64~6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노지온주감귤 공급량은 작년보다 10월에 16% 증가하고, 11월 이후에는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착과수 및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노지감귤의 당도는 9.4°Bx로 지난해보다 0.5°Bx 낮을 것으로 전망됨. 강우 일수 및 강우량이 증가하고 일조량도 적었기 때문임. 10월 출하될 노지 온주 외관은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조사됨.
- 3/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작년 동기보다는 18%, 증가한 5천여톤 수준이었음. 7~8월kg당 수입단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7~28% 높은 1.10~1.34US\$이었고, 9월은 4% 높은 1.08US\$이었음.
- 오렌지 7~8월 국내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4~55% 높은 4만 7,000원~5만원(발렌시아 상품 18kg) 수준이었음.
- 9~10월 수입량은 호주산, 남아공산, 칠레산 오렌지 수입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월 2,446톤 보다는 줄어들 전망임.

노지감귤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6	18,289	2,990	557
'07	18,238	3,549	647
증감률(%)	-0.3	16.5	16.2

주: '07년은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27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자료: '06년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임.

노지온주감귤 공급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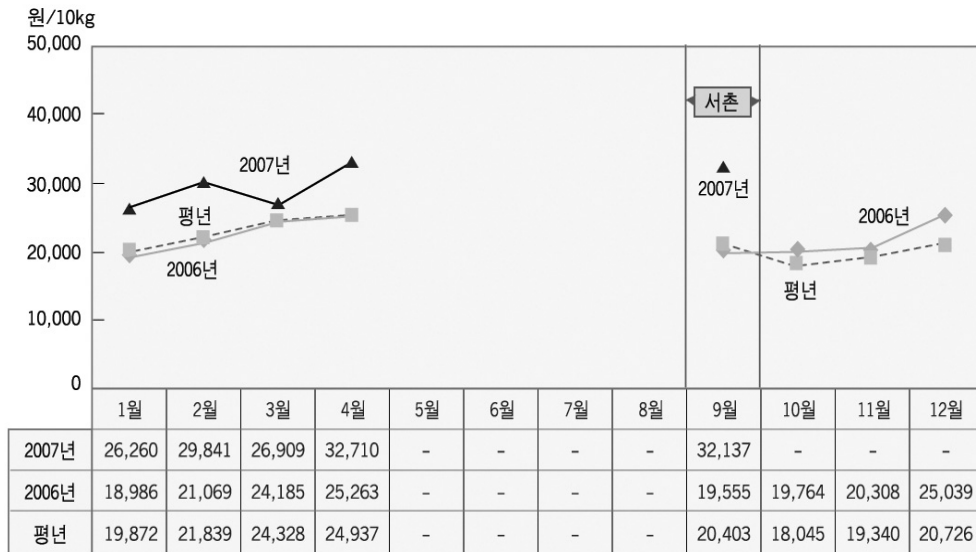
		생산량	공급량				
			계	10월	11월	12월	1월 이후
공급량 (천톤)	'06	557	431	33	91	127	180
	'07	647	507	38	111	138	220
증감률(%)		16.2	-11.5	16.0	21.2	9.0	22.2

주: '07년은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27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
자료: '06년 생산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6 시기별 공급량은 제주도 출하연합회 자료 기준임.



3.4. 단감

단감 도매가격 (상품)



주: 9월은 서촌조생, 10월 이후는 부유 기준임. 평년은 '01. 1~'06. 12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9월 단감 공급량은 작년 동기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0월 공급량은 작년보다 5% 증가하고 11월 이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단감의 품질조사결과, 부유의 당도는 작년보다 0.3°Bx 낮은 14.7°Bx로 예상됨.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임.
- 외관은 작년보다 “좋음” 38%, “비슷함” 38%, “나쁨” 14%로 작년과 비슷하게 나타남.



단감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6	15,295	1,375	210
'07	14,245	1,617	230
'07/'06 증감률(%)	-6.9	17.6	9.5

주: '07년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일~27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자료: '06년 성목면적과 생산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임.

단감 공급량 전망

단위: 천톤

		생산량	공급량			
			계	9월	10월	11월 이후
공급량 (천톤)	'06년산	210	188	10.9	36.9	47.4
	'07년산	230	206	9.8	38.7	52.9
증감률(%)		-9.1	-9.1	-9.5	5.0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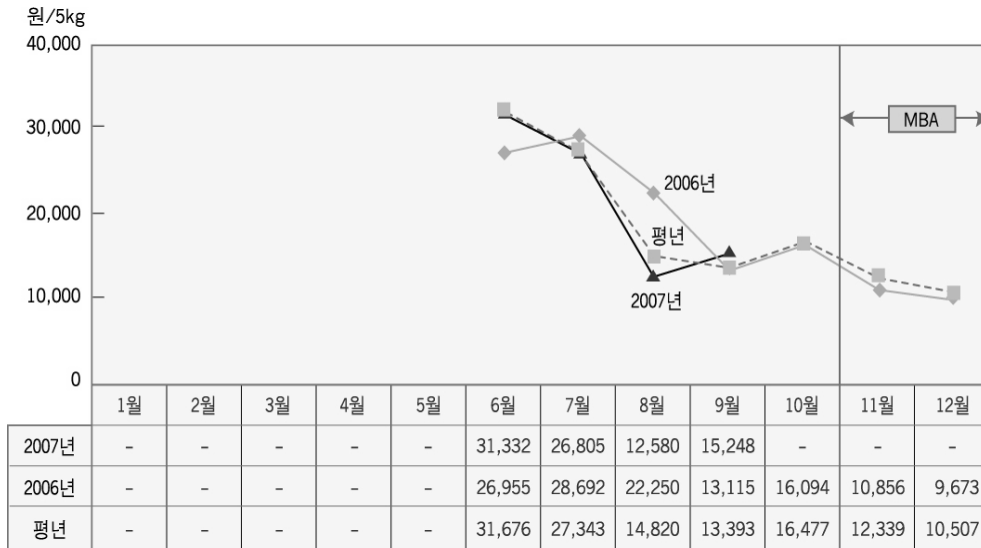
주: '07년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일~27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에 의한 전망치임.
자료: '06년 생산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임.

3.5. 포도

- 7~8월 캠벨얼리 가격(상품 5kg)은 작년보다 7~43% 낮았음. 가격이 낮은 이유는 잦은 비로 인한 당도 및 품질저하, 대체과일 공급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9월 캠벨얼리 가격은 잦은 비로 인한 열과 발생 및 숙기 지연으로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대체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도가 좋아 작년보다 16% 높았음.
- 포도 성목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한 1만 5,924 ha이고, 성목단수는 4% 감소하여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한 31만 톤일 것으로 추정됨.



하우스포도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01~'06의 일별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가 제외된 평균임. 5~6월은 캠벨 2kg을 5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7월~10월은 캠벨 5kg, 11~12월은 MBA 5kg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에 출하될 노지포도 품질을 조사한 결과 캠벨얼리와 거봉의 경우 당도, 송이모양, 착색모두 작년보다 좋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지포도 품종별 평균당도를 살펴보면, 캠벨얼리가 작년보다 0.4°Bx, 거봉은 0.3°Bx, MBA는 0.4°Bx, 새단은 0.3°Bx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포도 생산량 추정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6	16,419	2,020	332
'07	15,924	1,945	310
증감률(%)	-3.0	-3.7	-6.6

주: '07년 품종별 성목면적·성목단수·생산량은 9월 29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노지포도 작년대비 예상품질

단위: %

		좋음	비슷	나쁨
캠벨얼리	송이모양	37.0	36.0	27.0
	착색	5.0	21.0	74.0
	당도	7.0	49.0	44.0
거봉	송이모양	25.0	31.0	44.0
	착색	15.0	42.0	52.0
	당도	15.0	35.0	50.0
MBA	송이모양	48.0	39.0	13.0
	착색	21.0	42.0	25.0
	당도	28.0	52.0	20.0
새단	송이모양	46.0	38.0	17.0
	착색	21.0	42.0	29.0
	당도	21.0	58.0	21.0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일~27일 표본농가 조사치.

노지포도 작년대비 평균당도(예상)

단위: °B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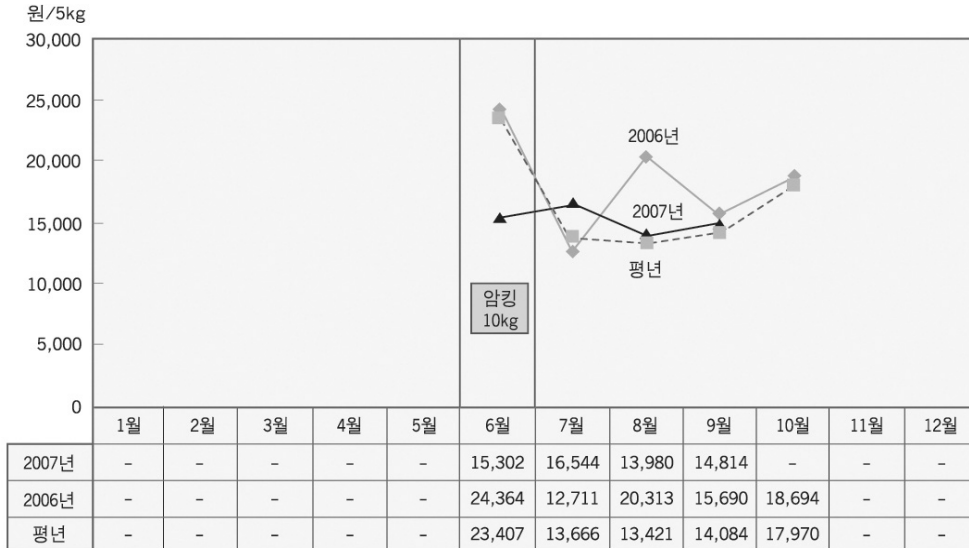
	캠벨얼리	거봉	MBA	새단
'06(A)	14.5	16.7	17.4	16.9
'07(B)	14.1	16.4	17.0	16.6
(B-A)	-0.4	-0.3	-0.4	-0.3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27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02 '06 의 일별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가 제외된 평균임. 6월은 암킹 10kg, 7월은 창방, 8월은 미백, 9월은 유명, 10월은 황도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7월 유모계 복숭아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였음. 반면, 천도계 가격은 5~15% 낮았음. 7월 복숭아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인 이유는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며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당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임.
- 8월 복숭아 가격은 작년보다 40~42%, 9월에는 17~23% 낮았음. 8월 복숭아 가격이 작년보다 낮았던 것은 7월말 이후 계속되는 잦은 비로 당도가 낮았기 때문임. 9월에는 잦은 강우로 인한 낙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품질 및 당도가 좋지 않아 가격은 작년보다 낮았음. 그러나 공급량 감소 및 추석수요의 증가로 전월대비 강보합세를 보였음.
- 복숭아 성목면적이 작년보다 3% 감소하고, 단수는 11% 증가하여 생산량은 8% 증가한 20만 9천톤일 것으로 추정됨. 숙기별 생산량은, 조생종이



작년보다 14%, 중생종은 10%, 만생종은 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숙기별 평균당도는, 조생종이 작년보다 0.1°Bx 높은 반면, 중생종과 만생종은 0.5°Bx, 0.6°Bx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복숭아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06	9,645	2,009	194
'07	9,373	2,228	209
증감률(%)	-2.8	10.9	7.8

주: '07 성목면적·성목단수·생산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복숭아 숙기별 생산량 증감률

단위: %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면적	-2.8	-2.8	-2.8
단수	17.6	12.7	6.6
생산량	14.3	9.6	3.6

주: 성목면적·성목단수·생산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복숭아 작년대비 평균당도 (예상)

단위: °Bx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06(A)	10.8	12.2	12.9
'07(B)	10.9	11.7	12.3
당도차이(B-A)	0.1	-0.5	-0.6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4일~27일 모니터 조사치.



과일 소비자 조사 및 시사점¹³⁾

□ 조사 목적

- 최근에 출하되고 있는 과일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향후 구입의향을 파악하여 단기 및 중장기 과일관측정보 제공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 내용

- 포도, 복숭아 등 8월 출하과일의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소비자 평가
- 여름철 출하 과일 구입 동향과 추석 과일 구입의향 파악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기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조사는 2007년 8월 31일(금)~9월 3일(월)에 실시됨.
-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대전 등 8개 지역에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짐.
 - 응답인원은 713명으로 응답률은 71.3%임.

□ 조사 결과

- 과일 품질 만족도 평년과 비슷
 - 소비자들이 8월에 구입한 과일 품질 만족도는 평년과 비슷함. 만족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포도로 응답자의 51.7%가 ‘품질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함.

13)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한재환(jhhan@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사과(쓰가루), 복숭아, 감귤은 품질이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과일 품목별 품질 평가 결과

단위: %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유모	천도	
아주 좋은 편	6.0	9.2	7.9	4.9	4.6
좋은 편	38.3	42.5	33.9	29.5	29.0
평년과 비슷	44.4	35.5	38.2	48.0	57.3
나쁜 편	11.3	12.5	18.0	16.9	9.1
아주 나쁜 편	-	0.3	2.0	0.7	-
계	100.0	100.0	100	100	100

주: 과일 맛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평년대비임. 사과는 쓰가루, 포도는 캠벨, 감귤은 하우스온주밀감 품종 기준임.

○ 품질 만족도 점수 포도가 가장 높음

- 과일 품목별 만족도에 대한 점수도 포도가 75.9점으로 가장 높음. 사과는 71.8점, 복숭아 유모계는 70.0점, 천도계는 68.5점, 감귤은 70.0점임.

과일 품목별 품질 만족도 점수

단위: 점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유모	천도	
점수	71.8	75.9	70.0	68.5	70.0

주: 과일 품질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임.

○ 과일 구입물량 평년과 비슷

- 과일 품목별로 구입물량이 평년에 비해 ‘10~20%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포도와 복숭아 유모계로 각각 36.4%, 33.0%임.
- 사과, 천도복숭아, 감귤의 구입 물량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과일 8월 구입물량 증감 비율

단위: %

	사과	포도	복숭아		감귤
			유모	천도	
많이 증가(20% 이상)	6.7	7.7	7.9	5.4	2.9
조금 증가(10~20%)	30.9	36.4	33.0	19.7	14.6
비슷	37.6	30.6	31.9	41.1	38.1
조금 감소(10~20%)	21.5	21.9	22.9	26.6	32.3
많이 감소(20% 이상)	3.4	3.4	4.3	7.2	12.1
계	100.0	100.0	100	100	100

주: 평년 8월 기준 대비 과일 구입물량 증감률임. 사과는 쓰가루, 포도는 캠벨, 감귤은 하우스온주밀감 품종 기준임.

○ 추석 과일 구입의향 평년과 비슷

- 소비자들이 추석(9월 25일)용으로 구입할 과일물량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사과, 배, 포도는 평년에 비해 ‘조금 증가시키겠다’가 ‘조금 감소시키겠다’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감귤은 ‘조금 감소시키겠다’라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추석 과일 구입의향 물량

단위: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많이 증가 (20% 이상)	3.7	2.1	2.8	3.1	1.8
조금 증가 (10~20%)	33.9	27.6	35.2	22.3	15.1
비슷	52.0	56.2	47.9	46.5	49.4
조금 감소 (10~20%)	9.6	13.4	12.3	22.7	27.1
많이 감소 (20% 이상)	0.8	0.7	1.8	5.4	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구입물량 증가의 주요인은 맛

- 과일 구입물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주이유는 ‘맛이 좋아졌기 때문’과 ‘과일 섭취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때문임.
-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구입물량을 감소시킬 주 이유도 ‘맛이 떨어지기 때문’임.
- ‘가격 요인’으로 감소시킬 응답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추석 과일 구입의향 증가 이유

단위: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소득 증가	2.3	3.8	0.0	1.1	3.5
가격이 하락	9.1	6.6	12.6	10.6	5.2
맛이 좋아짐	29.4	20.3	39.8	42.5	40.0
섭취량 증대	32.8	23.6	39.4	36.3	33.9
선물용도 증가	26.0	45.3	6.7	8.4	13.9
기타	0.4	0.5	1.5	1.1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추석 과일 구입의향 감소 이유

단위: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소득 감소	16.0	9.2	11.1	8.7	9.4
가격이 비싸짐	29.3	39.8	17.2	15.8	30.4
맛이 떨어짐	34.7	30.6	47.5	47.4	27.2
과일 외 농산물 구입 증대	9.3	11.2	9.1	17.9	21.4
기타	10.7	9.2	15.2	10.0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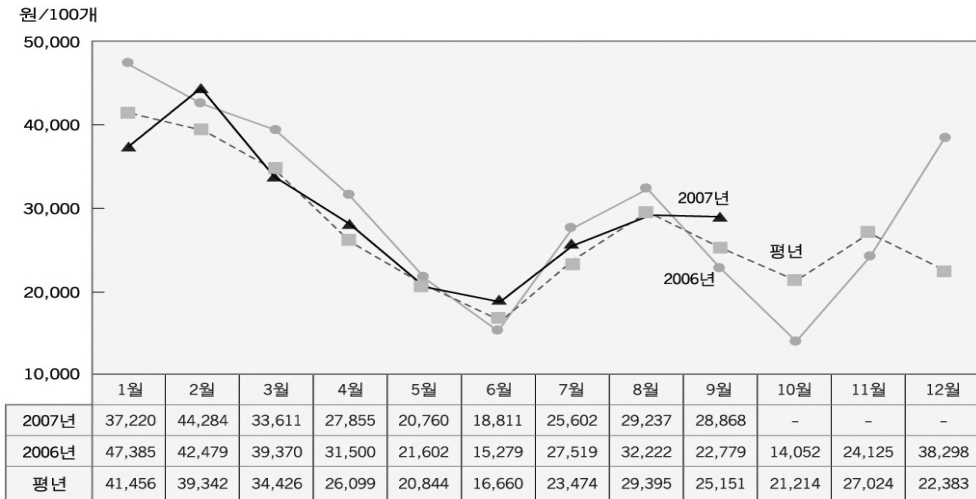
- 과일 품목별 품질만족도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나 과일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음. 이는 잦은 강우로 과일의 품질이 좋지 않음을 암시함.
- 품목들 중에 포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 포도의 수요 및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과일들 중에 평년 대비 구입물량 비율이 10~20%로 비교적 높게 늘어난 품목은 포도와 복숭아 유모계임.
- 추석과일 구입물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구입물량 변동은 “과일 맛”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큼. 이는 소비자의 과일에 대한 수요는 당도에 크게 달려 있음을 암시함.



4. 과채¹⁴⁾

4.1. 오이

백다다기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2~2006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4~8월은 8kg 개당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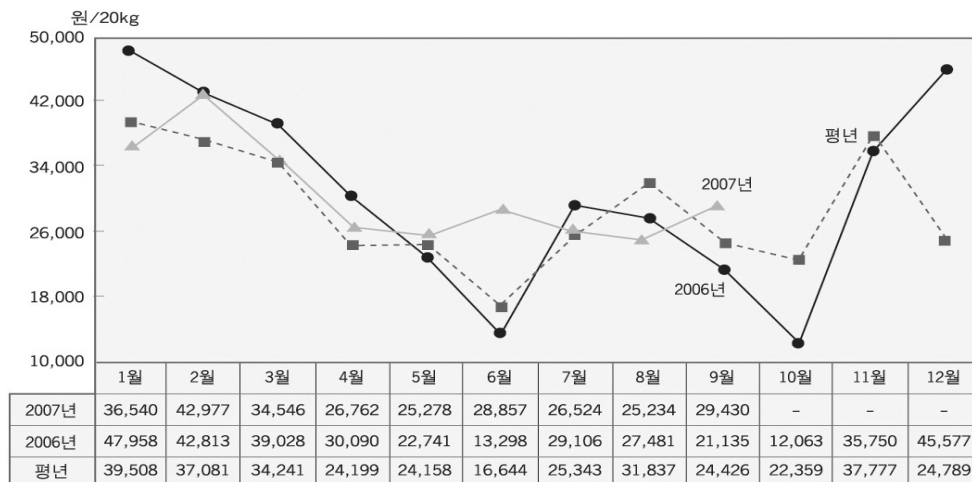
- 백다다기의 3/4분기 가격은 상품 100개당 7월 2만 5,6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고, 8월은 2만 9,200원으로 평년과 비슷하였음. 9월은 2만 8,900원으로 강세를 나타냈음.
- 백다다기 7~8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채소류(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가격이 상승하였음. 9월에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 취청 가격은 7월에 상품 20kg당 2만 6,500원으로 강세를 지속하다 8월에는 2만 5,200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음. 9월에는 출하량은 증가 했지만 소비대체재인 백다다기 가격 강세로 동반 상승하였음.

1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최병옥 전문연구원(bochoil@krei.re.kr), 정학균(hak8247@krei.re.kr), 김원태(wtkim@krei.re.kr), 김수림(surim@krei.re.kr), 윤선희(sunny@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11월 백다다기 출하면적은 시설 지원 사업으로 남부지역 축성오이의 재배가 늘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1월 출하량은 단수는 낮지만 출하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4% 많을 전망이다. 11월 취청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감소로 작년보다 10%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1월 백다다기 가격은 출하량은 많지만 취청 물량이 적어 평년 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11월 취청 가격은 출하량은 감소하지만 백다다기 물량 증가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10, 11월 백다다기 축성재배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11%, 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10월 정식면적이 증가한 것은 작년 10월 가격이 낮아 상주, 대전광역시의 농가가 금년 정식시기를 9월에서 10월로 늦추기 때문임. 11월 정식면적은 작년 겨울철 가격이 높아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월 취청 정식면적은 9월 집중호우 영향으로 정식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16% 감소하고, 11월은 1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취청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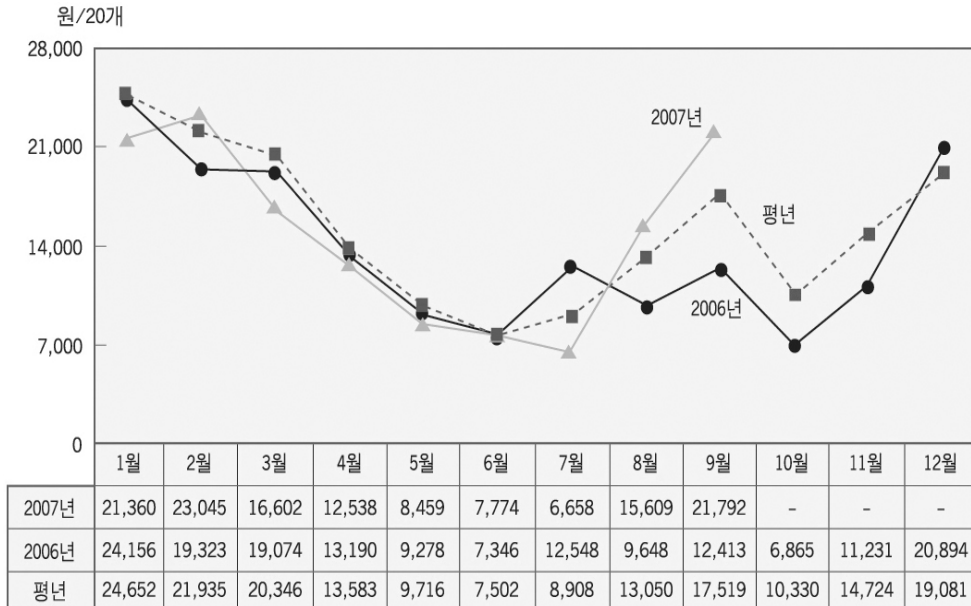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2~2006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4~8월은 8kg 개당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2. 호박

호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2~2006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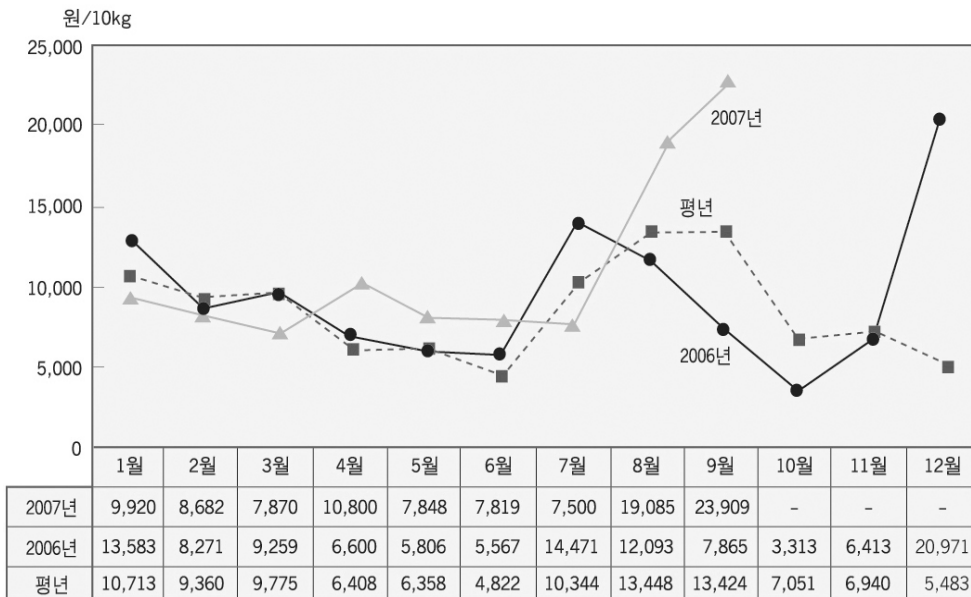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애호박 3/4분기 가격은 상품 20개당 7월에 6,700원으로 약세를 나타냈으나 8월 1만 5,600원, 9월 2만 1,800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높은 시세를 나타냈음.
- 7월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8~9월에는 강원 주산지 일사량 부족으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여 강세를 나타냈음.
- 주키니 3/4분기 가격은 상품 10kg당 7월에 7,500원으로 약세를 나타냈으나 8월 1만 9,100원, 9월 2만 3,90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7월 주키니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8~9월에는 소비 대체재인 애호박 가격 상승으로 강세를 나타냈음.



- 11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감소로 작년보다 8%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6% 많을 것으로 전망됨. 11월 주키니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작년보다 14% 많을 것으로 전망됨.
- 11월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작년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키니는 작년가격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10~11월 애호박 정식면적은 겨울 축성 애호박 재배가 늘어 작년보다 각각 5%, 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철 출하기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진주, 광양지역에서 오이, 풋고추 등을 재배하던 농가가 애호박으로 작목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10월 주키니 정식면적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3% 증가하고, 11월은 토마토, 양상추로 전환되어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키니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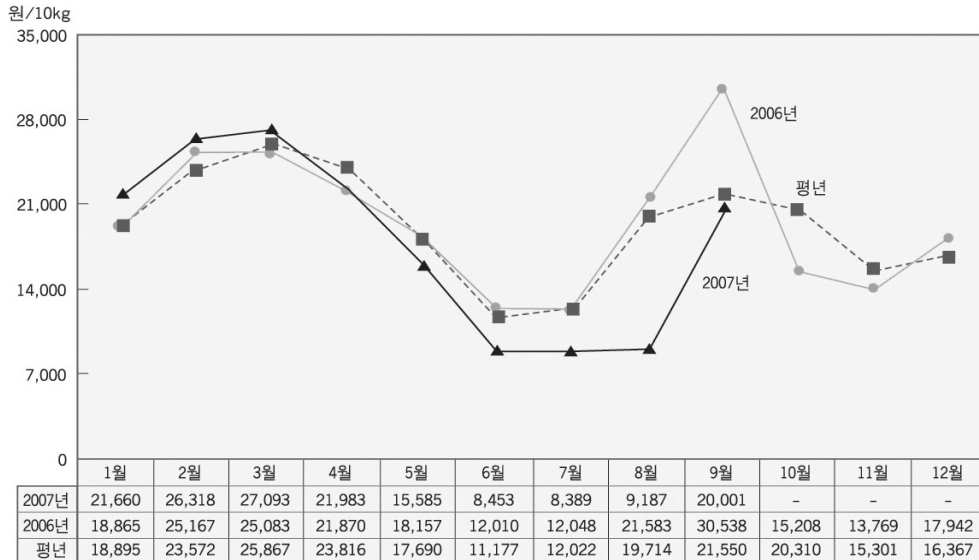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02~2006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3. 일반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2~2006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7월 8,400원, 8월 9,200원, 9월 2만원으로 7월은 전년 동기보다 30%, 8월은 57%, 9월은 35% 낮았음.
- 7월 가격은 출하량이 작년보다 증가하고 가격 약세가 이어져 작년보다 크게 낮았음. 8월 가격은 상순에 약세였지만, 강원도에서 산지폐기를 하는 한편, 하순에는 개학을 맞아 급식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반등함. 9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8~9월의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임.
- 10~11월 일반토마토 출하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6%, 8%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북 군위, 충남 연기의 일부 오이재배 농가들이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하였고, 충청지역의 출하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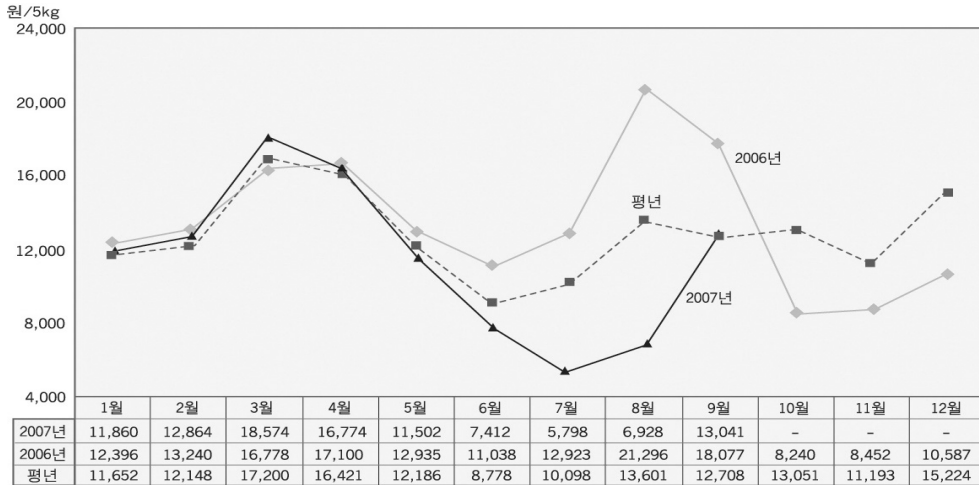
- 10~11월 단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8~9월의 기상악화로 수정 및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0월 일반토마토 가격은 9월 기상악화로 출하량이 작년보다 감소하여 상품 10kg당 1만 9,000~2만 3,000원 수준의 강보합세가 될 것으로 전망됨. 11월에도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적어 도매가격은 작년(1만 3,8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11월 정식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겨울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영남과 호남의 정식면적이 증가하고 사천, 부여 지역은 유류비 부담으로 정식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나타남.

4.4. 방울토마토

- 3/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당 7월 5,800원, 8월 6,900원, 9월 1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월 55%, 8월 68%, 9월은 28% 낮았음.
- 7월 가격은 중·하순에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각각 80%, 85%)하여 하락세를 보였고, 8월은 중순 이후에 출하량이 작년보다 적어 가격약세를 벗어남. 9월에는 주산지인 강원도의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반입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함.
- 10~11월 출하면적은 가을철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강원과 충청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0~11월 단수는 정식기 및 착과기의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각각 11%, 8% 낮을 것으로 조사됨.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2002~200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9월 작황부진으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높은 1만 2천~1만 5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11월에도 출하량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10~11월 정식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0월은 9월의 잦은 강우로 담양, 부여의 정식시기가 늦춰졌고, 11월은 봄봄철 가격이 높아 고성, 담양, 보성, 논산의 정식면적이 늘 것으로 나타남.

4.5. 딸기

- 올해 딸기 정식의향면적은 최근 가격 상승으로 작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지역에서는 시설면적이 확대되었고 충북, 경북지역은 신규로 딸기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늘어 정식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충남 지역은 딸기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규모를 줄이려는 농가들이 많을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쌀기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전국
3.4	2.0	1.9	16.8	-4.8	3.1	1.7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9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08년산 쌀기 정식면적 조사결과, 일본품종의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국산 품종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품종인 육보와 장희의 정식면적 비중은 63%로 작년대비 15%p 감소하고, 국산품종인 매향, 설향, 금향의 정식면적 비중은 35%로 작년대비 16%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품종별 쌀기 정식의향면적 비율

단위: %, %p

	육보	장희	매향	설향	금향	기타
2008년산	32.8	30.2	4.7	28.6	1.3	2.4
2007년산	46.8	31.2	7.9	8.6	1.4	4.1
증감(%p)	-14.0	-1.0	-3.2	20.0	-0.7	-1.7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9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쌀기 9월 정식면적은 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9월 정식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여름철 잦은 강우로 축성작형의 정식이 지연되었고, 국산 품종의 보급확대로 반축성작형의 정식시기가 앞당겨졌기 때문임.

순별 쌀기 정식의향면적 비중

단위: %, %p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상순	
2008년산	15.8	22.0	23.7	18.4	13.3	3.7	2.4	0.7	100.0
2007년산	19.3	21.4	21.6	17.6	12.6	4.3	2.7	0.6	100.0
증감(%p)	-3.5	0.6	2.2	0.9	0.7	-0.6	-0.3	0.1	10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9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9월 중순 품종별 정식면적 비중은 설향은 작년보다 20%p 증가하였고, 육보와 장희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7%p, 10%p 감소하였음.

품종·순별 딸기 정식의향면적 비중

단위: %

2008년산	장희	육보	매향	설향	금향	기타	합계
8월 하순	88.7	0.0	1.6	8.0	0.3	1.3	100.0
9월 상순	59.5	3.4	6.3	26.7	2.0	2.1	100.0
9월 중순	19.2	20.2	6.0	51.5	1.4	1.7	100.0
9월 하순	2.2	58.8	1.8	31.6	3.2	2.5	100.0
10월 상순	0.9	86.7	0.0	7.9	3.2	1.4	100.0
10월 중순	5.6	91.3	0.0	0.0	3.0	0.0	100.0
10월 하순	0.0	100.0	0.0	0.0	0.0	0.0	100.0
11월 상순	0.0	10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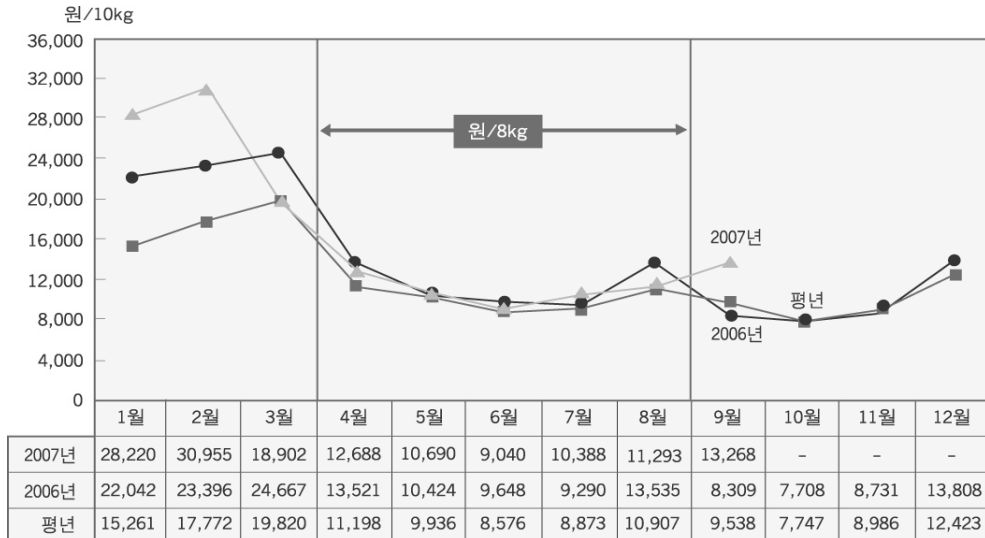
2007년산	장희	육보	매향	설향	금향	기타	합계
8월 하순	90.8	0.6	1.4	4.1	0.6	2.6	100.0
9월 상순	61.3	10.5	8.9	16.4	0.6	2.1	100.0
9월 중순	25.9	29.9	7.1	31.9	1.8	3.5	100.0
9월 하순	0.6	80.9	1.5	9.6	3.1	4.3	100.0
10월 상순	0.0	97.5	0.0	0.7	1.0	0.9	100.0
10월 중순	0.0	97.0	1.5	1.0	0.5	0.0	100.0
10월 하순	0.0	94.7	0.0	0.0	0.0	5.3	100.0
11월 상순	0.0	100.0	0.0	0.0	0.0	0.0	10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9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6. 수박

수박 도매가격 (상품)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2~200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8kg 개당 7월 1만 400원, 8월 1만 1,30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12% 높았고, 17% 낮았음. 9월에는 상품 10kg 상자당 1만 3,600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64% 높았음.
- 10~11월 수박 출하면적은 여름철 수박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호박, 무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11월 수박 단수는 9월 태풍의 영향과 일사량 부족으로 생육상황이 좋지 않아 작년보다 2~3%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11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줄어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수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와 가을철 소비 증가로 상품 10kg 상자당 1만 1천~1만 3천원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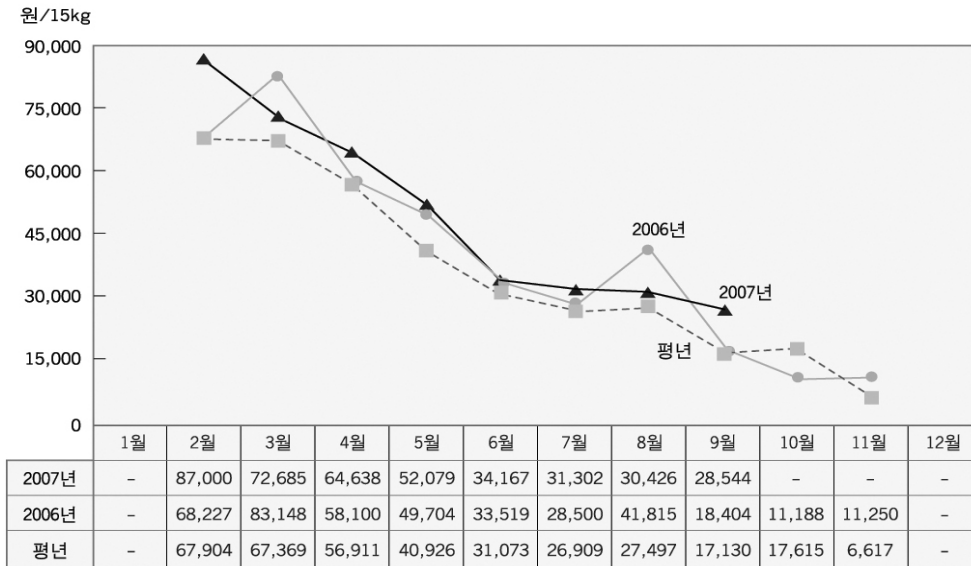
- 11월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전월과 비슷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정식면적은 조기출하를 위해 축성작형의 정식시기를 앞당겨 작년보다 6% 늘 것으로 나타났음.
- 11월 정식면적은 축성작형의 정식이 10월로 앞당겨져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7월 가격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월 보다 낮은 2만~2만 8천원 수준으로 전망됨.

4.7. 참외

- 3/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7월 3만 1,300원, 8월 3만 400원, 9월 2만 8,500원으로 7월에는 작년보다 10% 높았고 8월에는 작년보다 27% 낮았으며 9월에는 작년보다 55% 높았음.
- 10~11월 참외 출하면적은 경북지방의 극심한 해충피해로 수확을 종료하고 토양관리에 들어간 면적이 많아 작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11월 참외 단수는 해충방제를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수정률이 낮고 비상품과 발생률도 높아 작년보다 매우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 10~11월 참외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대폭 감소하여 작년보다 각각 73%, 75%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참외 가격은 출하량이 적어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1만 8천~2만 4천원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11월 가격도 전월 수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참외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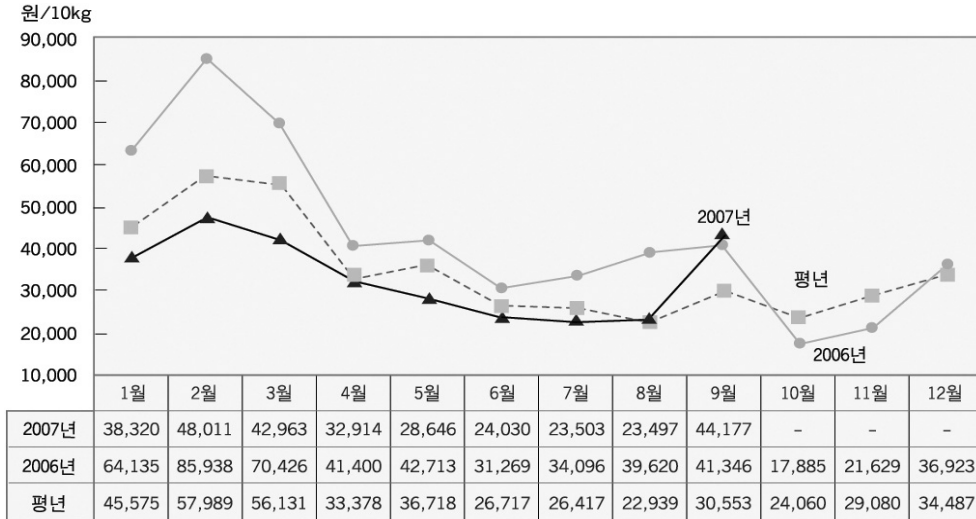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2~200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8. 일반풋고추

- 일반풋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7월 2만 3,500원, 8월 2만 3,500원, 9월 4만 4,200원으로 작년보다 7월은 31% 8월은 41% 낮았으나 9월은 7% 높았음. 7월과 8월의 가격이 낮았던 것은 충남과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9월 가격은 8~9월의 잦은 강우로 강원도의 출하량이 감소한데다 추석특수로 9월 하순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높았음.
- 10~11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7%,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전남 광주, 영암에서 일반토마토를 재배하던 농가가 일반풋고추로 작목을 전환하여 일반풋고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상품)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2~200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단수는 9월의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3% 감소하고 11월은 기상호조가 예상되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10월 정식면적은 경남 진주, 창녕에서 애호박과 가시오이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11월은 경남 함양에서 신규로 일반풋고추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풋고추 10월 출하량은 단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출하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4% 증가하고, 1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늘어 작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월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당 2만 3천~2만 8천원으로 전망됨. 11월 가격은 전남 지역의 출하면적 증가로 전월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 10~11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7%,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전남 광주, 영암에서 일반토마토를 재배하던 농가가 일반풋고추로 작목을 전환하여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10월 단수는 9월의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3% 감소하고 11월은 기상호조가 예상되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10월 정식면적은 경남 진주, 창녕에서 애호박과 가시오이로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11월은 경남 함양에서 신규로 일반풋고추를 재배하려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일반풋고추 10월 출하량은 단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출하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4% 증가하고, 11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늘어 작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월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당 2만 3천~2만 8천원으로 전망됨. 11월 가격은 전남 지역의 출하면적 증가로 전월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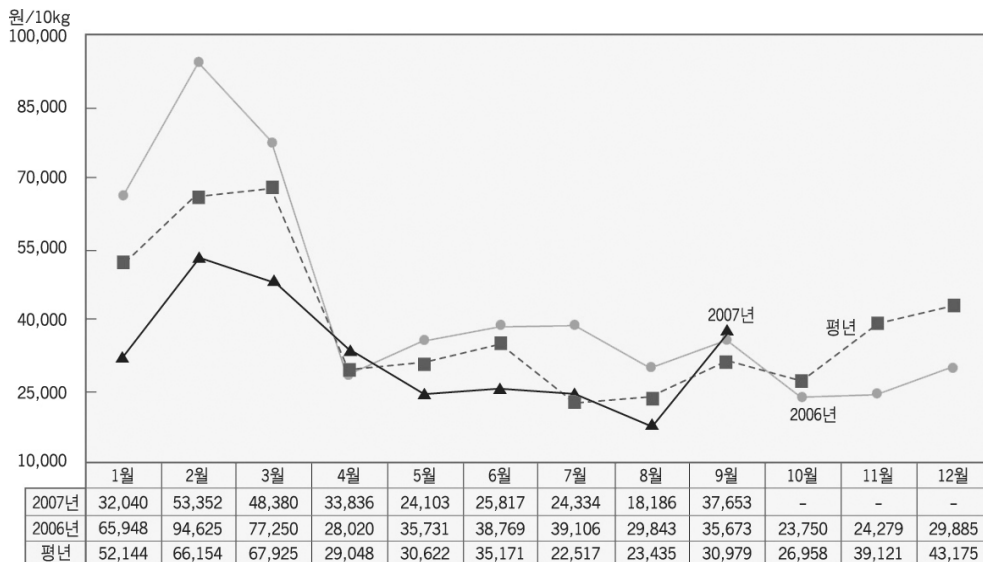
4.9. 청양계풋고추

- 청양계 풋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7월 2만 4,300원, 8월 1만 8,200원, 9월 3만 7,700원으로 7월과 8월은 작년보다 각각 38%, 39% 낮았으나 9월은 작년보다 6% 높았음. 7~8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강원 횡성과 경북 예천에서 청양계풋고추 재배가 늘어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9월 가격은 8~9월 작황이 좋지 않아 강원도의 출하량이 감소하였고 추석 특수로 9월 하순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높았음.
- 10~11월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각각 4%,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전남 광주, 영암지역과 강원도지역에서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예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10월 단수는 9월의 잦은 강우로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11월은 기상호조가 예상되어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10~11월 정식면적은 경남 밀양, 진주지역에서 오이맛고추로 품종을 전환하려는 농가가 늘어 작년보다 각각 5%,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10월 출하량은 작황부진으로 작년보다 1% 감소하고, 11월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모두 늘어 작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월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당 2만 3천~3만원으로 전망됨. 11월 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여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 (상품)



주: 가격은 월별자료임. 평년은 2002~2006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5. 축산¹⁵⁾

5.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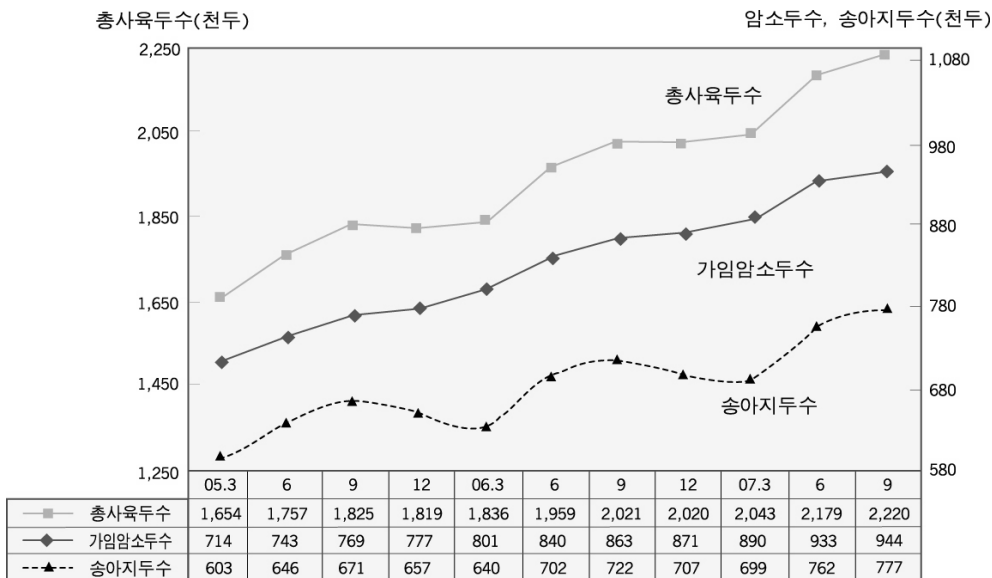
- 2007년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222만 두로 전분기에 비해 4만 1천두(1.9%) 증가하였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9만 9천두(9.8%) 증가하여 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1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허덕 연구위원(huhduk@krei.re.kr), 이형우(ihw0906@krei.re.kr), 김현중(kim1025@krei.re.kr), 이정민(fantom9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그 중 한우 사육두수는 205만 1천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만 8천두(11.3%) 증가하였음. 육우는 16만 9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1만두(5.6%) 감소하였음.
- 2007년 6월 가임암소는 94만 4천두로 전분기에 비해 1만 1천두(1.2%)증가 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8만 1천두(9.4%) 증가한 것임.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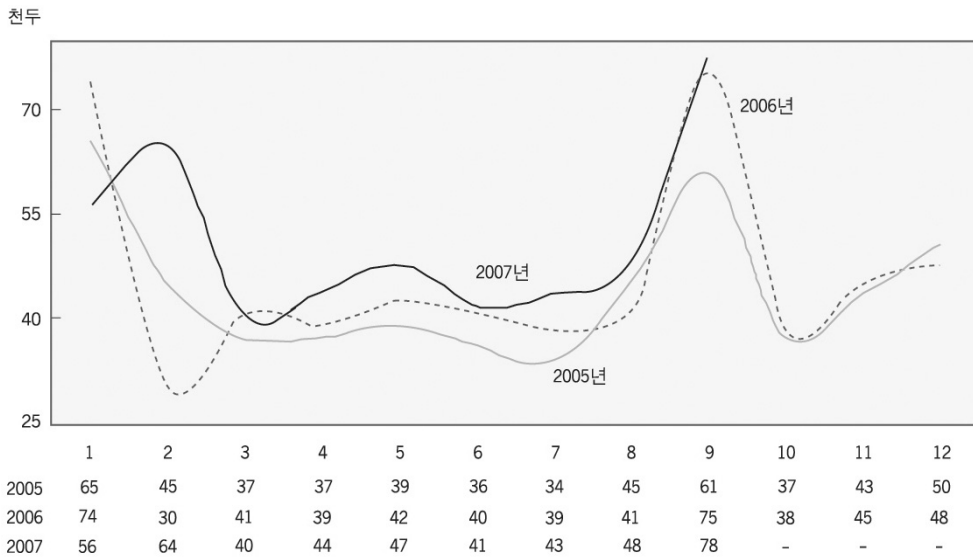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한육우 사육농가수는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18만 8천호로 조사되었 으며, 가구당 사육두수는 11.7두로 전년 동기보다 1.1두(10.4%) 증가함.
- 2007년 1~9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9.4% 증가한 46만 1천두임. 그중 한우 암소는 15만 6천두, 수소는 21만 2천두로 각각 전년 대비 25.0%, 6.6% 증가하였으며, 육우는 9만 3천두(4.9% 감소)임.
- 2007년 9월 도축두수는 한우 수소 3만 4천두, 육우 1만 6천두로 전년대비 각각 4.2%, 9.9% 감소하였음. 반면, 한우 암소는 전년대비 25.2% 증가한 2만 8천두가 도축됨.



- 한우 암소 도축이 증가한 이유는 한·미 FTA 타결 및 미국산 소갈비 수입재개 논의가 재개되면서 사육농가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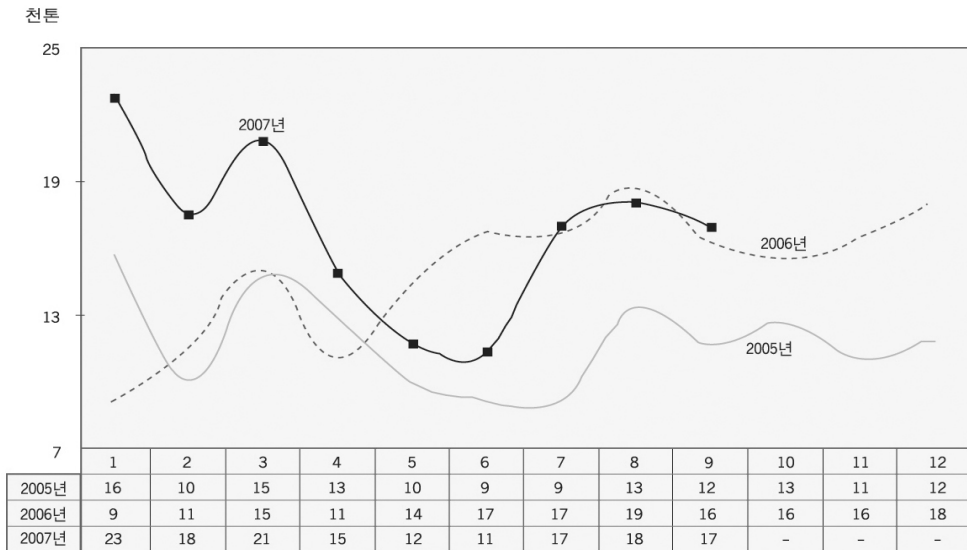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 2007년 1~9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15만 1천 톤으로 전년동기보다 17.0% 증가함. 이중 호주산이 10만 4천 톤으로 68.6%, 뉴질랜드산이 3만 3천 톤으로 21.6%, 미국산이 1만 3천 톤으로 8.5%, 기타국가가 2천 톤으로 1.3%를 차지함.
-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한 이후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이 감소함. 4~9월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4.0% 감소한 6만 톤, 뉴질랜드 산은 29.1% 감소한 1만 6천 톤이었음.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 (검역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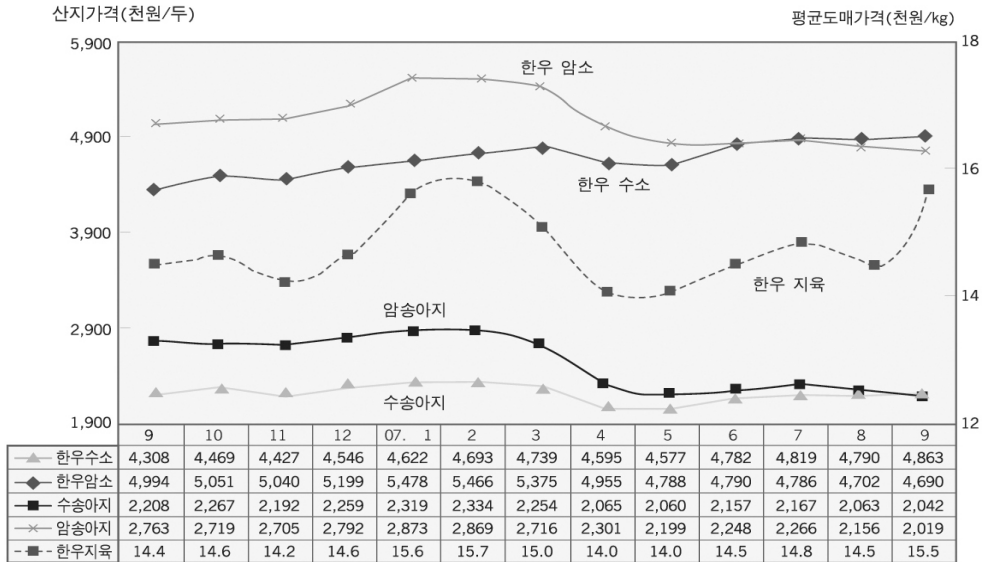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통이 가시화되고, 미국산 소갈비 수입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수소를 제외한 한우 산지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음.
- 2007년 10월 한우 산지가격(1~24일, 600kg)은 수소 501만원(전년 동월 대비 12.2% 상승), 암소 483만원(4.3% 하락), 수송아지 209만원(7.7% 하락), 암송아지 207만원(24.0% 하락)이었음.
- 암송아지 가격 하락폭이 큰 것은 한우 사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암소 사육을 기피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한육우 수소 가격 상승에 기여한 요인은 수소(비거세) 도축두수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와 대량급식 및 한우 군납 물량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임.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주: 한우 수소 및 암소는 600kg 기준이며, 10월 가격은 7월 1일~7월 24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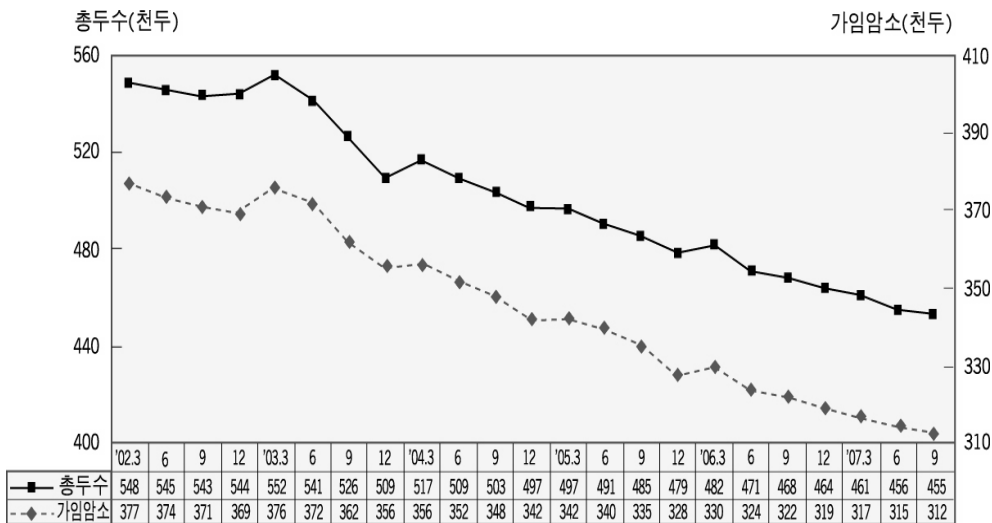
5.2. 젓 소

- 젓소 사육두수 감소세는 9월에도 지속되었음. 젓소 사육두수는 지난해 1세 미만, 1~2세 두수가 감소한데 따라 올해 1~2세, 2세 이상 두수가 감소함. 올해 9월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만 3천두(△2.8%) 감소한 45만 5천두였음. 가임암소 두수는 31만 2천두로 1만두(△3.1%) 감소하였음.
- 인공수정 실적 감소세에 따라 1세미만 사육두수도 감소세로 나타남. 올해 9월 1세 미만 두수는 9만 1천두로 전년동기와 비슷하였고, 1~2세 두수는 10만 4천두로 5천두(△4.9%), 2세 이상 두수는 8천두(△3.0%) 감소하였음. 2세 이상 두수 중 착유우 두수는 21만 7천두로 4천두(△1.8%) 감소하였음.
- 9월 젓소 사육호수는 7천 8백호로 전년 동기보다 7백호(△8.2%)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사육호수는 3천 5백호로 전년동기보다 6백호(△14.6%) 감소하였으며, 50두 이상은 4천 3백호로 1백호 감소하였음.



- 50두 미만규모 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9천두($\Delta 14.7\%$) 감소하였지만, 50두 이상 규모농가의 사육두수는 6천두(1.8%) 증가한 34만 5천두 이었음. 주로 규모가 100두 이상되는 농가의 사육두수가 증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55두에서 올해 9월 58.3두로 3.3두(6.0%) 증가하였음.

젖소 사육두수 동향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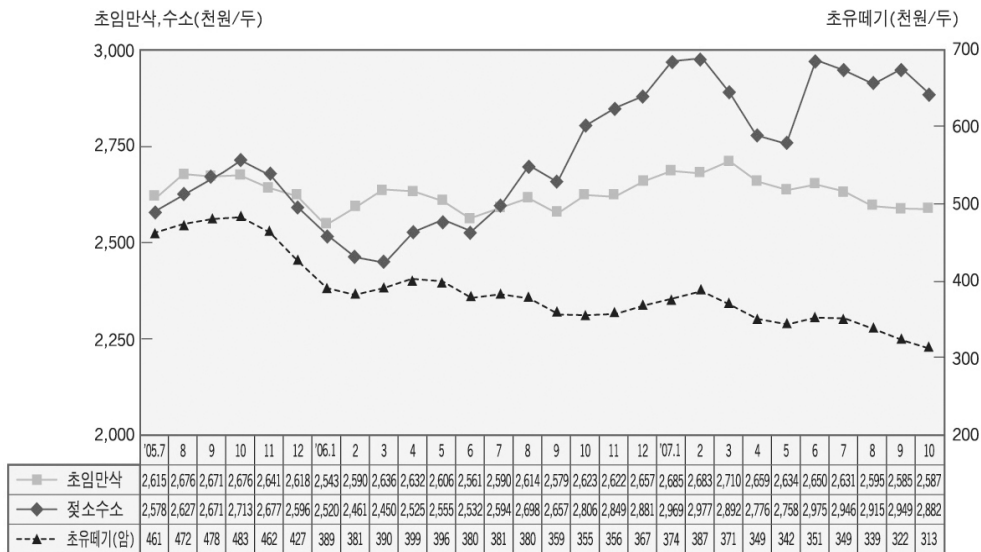
- 초유떼기 암송아지의 평균 산지가격은 올해 6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3분기 산지가격은 33만 7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8% 하락하였고 10월 20일까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31만 3천원이었음.
- 초임만삭우 평균가격도 초유떼기 암송아지 가격과 비슷한 변동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3분기 산지가격은 260만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0월 20일까지 가격은 25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학교급식 및 군납과 같은 대량 급식 위주로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젖소 수소 가격(600kg)은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 3분기



가격은 294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0.8% 상승하였고 10월 20일까지 가격은 288만원이었음.

- 원유 생산량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제품 소비 증가로 올해 5월까지의 분유재고가 지난해 보다 감소하였다가 6월에는 소폭 증가하였음. 올해 6월 말 분유재고는 9,526톤으로 전년 6월보다 0.9% 증가하였으나 평년보다는 18% 감소하였음.

젖소 산지가격 변동



주: 10월 산지가격은 10, 20일 평균 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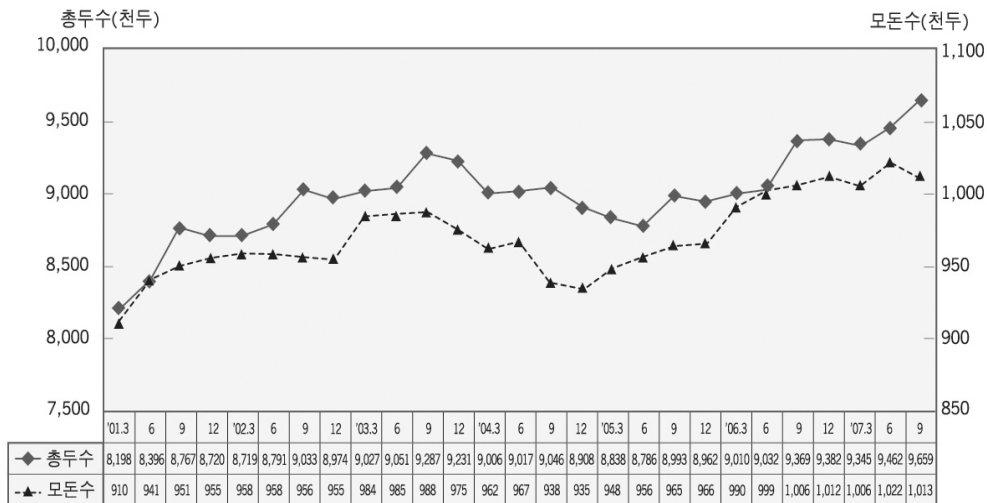
5.3. 돼 지

- 모돈수가 증가하여 올해 9월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29만두 (3.1%) 증가한 965만 9천두 이었음. 올해 사료가격이 수차례 상승하고, 돼지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모돈수는 작년 6월 이후 100만두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9월 모돈수는 101만 3천두로 전년 동기보다 7천두 (0.7%) 증가하였지만, 전분기보다는 9천두 감소하였음.



- 9월 돼지 사육호수는 전년 동기보다 1,200호($\triangle 10.5\%$) 감소한 1만 200호이었음. 사육호수는 1천두 미만에서만 감소하였으며, 1천두 이상 사육호수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음.
- 1천두 미만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2만 7천두($\triangle 6.7\%$) 감소한 반면, 1천두 이상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두수는 41만 7천두(5.6%) 증가하여 1천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의 82%를 차지하였음.
- 호당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818두에서 올해 9월 944두로 126두(15.4%)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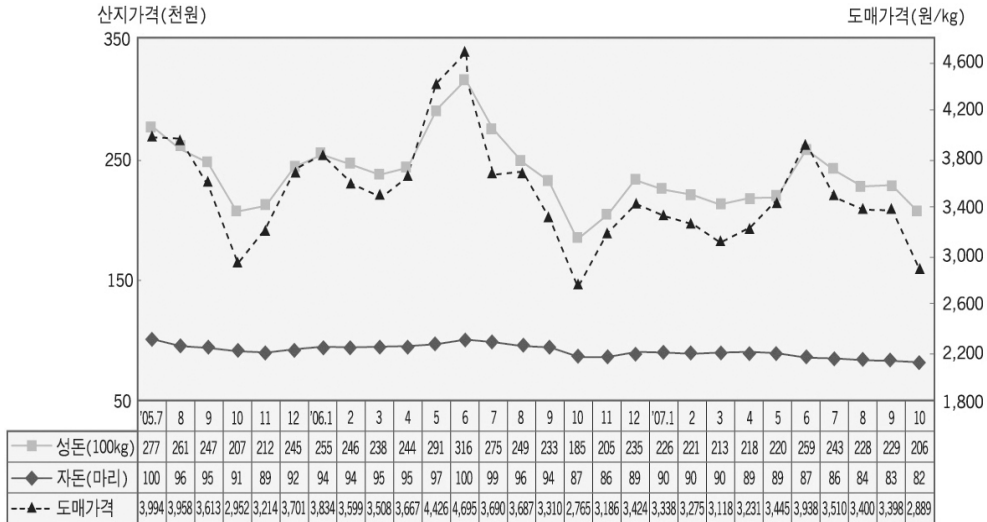
돼지 사육두수 동향



자료: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주: 10월 산지 및 도매가격은 20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돼지 출하두수가 증가하고, 돼지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여 9월 중순까지는 돼지 산지가격(600kg 성돈 기준)이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조치 등의 영향으로 9월 중순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음. 3분기 가격은 전년 동기간보다 7.6% 하락한 23만 3천원이었음. 10월(20일까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2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음.
- 올해 자돈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3분기 가격은 8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2.5% 하락하였고, 10월(20일까지) 가격도 8만 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임.
- 도매가격: 3분기 도매가격은 kg당 3,436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3.5% 하락하였으나, 10월(20일까지)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2,889원임.
-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올해 9월까지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3.6% 증가한 986만두 이었음. 올해 2월을 제외하고 8월까지 도축두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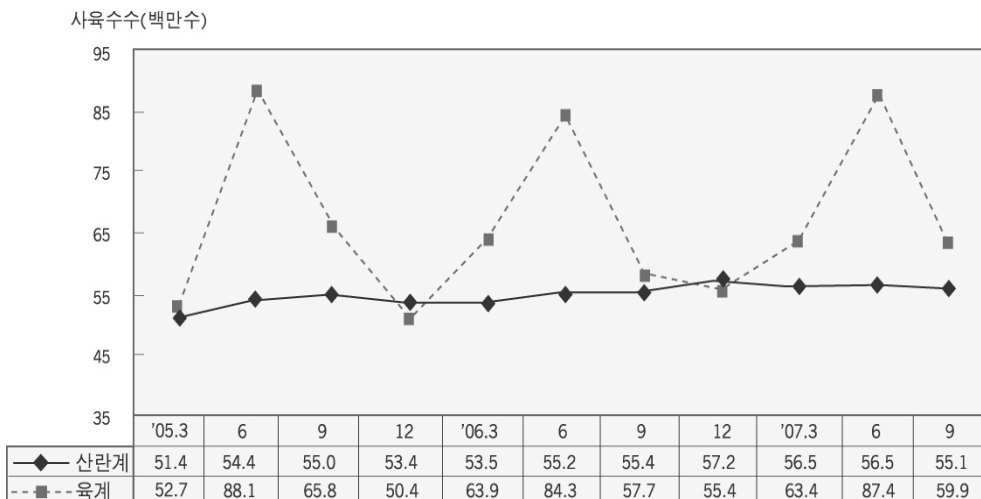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9월 도축 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100만두였음. 1~9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19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28.9% 증가하였음. 9월 수입량은 1만 7백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24.9% 감소하였음.

5.4. 닭

- 9월 산란계 사육수수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 종계 입식수수(산란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가 증가하였으나, 계란 가격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노계 도태가 상당수 이루어져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감소함.
-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5,512만수로 3개월 전보다 2.5%, 전년보다 0.2% 감소하였음.
- 육용 종계 입식수수 증가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9월 사육수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함.
- 9월 육계 사육수수는 5,995만수로 3개월 전보다 31.4% 감소하였으나 전년보다는 3.9% 증가함.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주: 2006년부터 3,000수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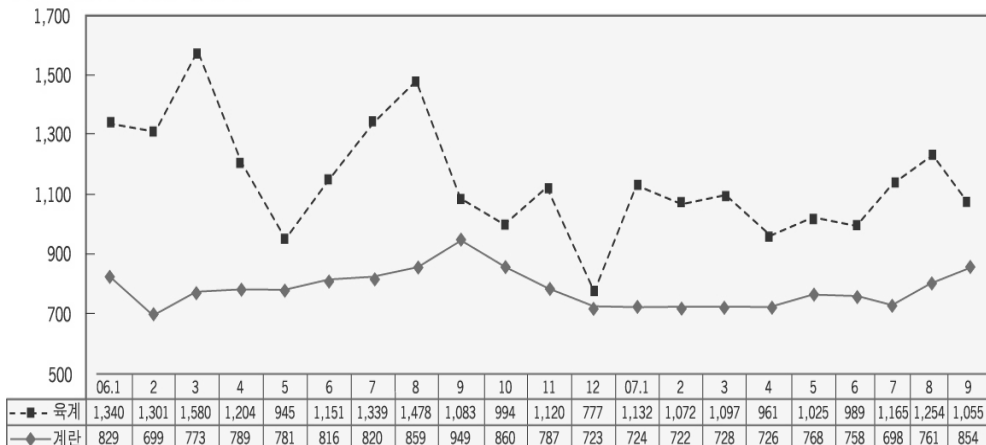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 노계 도태가 지연되면서 산란용 마리수 증가하여 계란 공급량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2분기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6% 하락한 751원이었음. 3분기 계란 산지가격 또한 계란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전년보다 12.0% 하락한 771원이었음.
- 10월 중순에는 추석 이후 환우에 들어간 계군이 상당수 있어 일시적으로 계란 공급이 감소하여 산지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하였음.
- 2분기에도 공급 과잉 등으로 육계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9.8% 하락한 992원이었음. 여름철 복경기 때에는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3분기 육계 평균 가격은 2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지난해보다는 10.9% 낮은 1,158원이었음.
- 큰 일교차로 육계 생산성 및 공급이 감소되어 10월 중순 이후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그러나 향후에는 닭고기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열업체의 육용 종계 감축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산지가격(원/10개, 원/생체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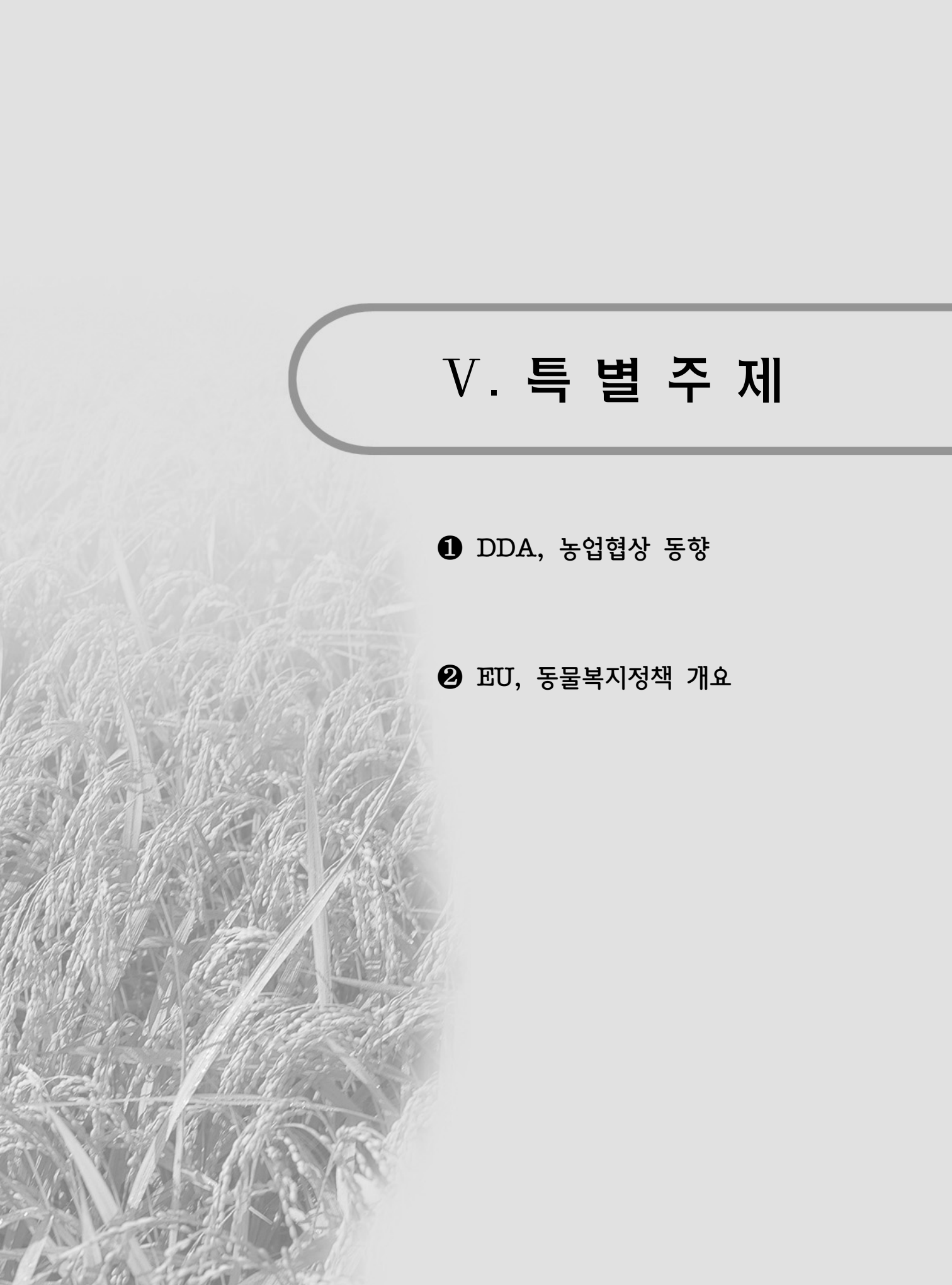


주: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2분기 산란 종계 입식수수는 7만 7천수로 전년 동기보다 43.2% 감소하였음. 3분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 병아리수는 17만 6천수로 전년 동기보다 77.0% 증가하였음.
- 2분기 육용 종계 입식수수는 143만수로 지난해 동기보다 25.8% 증가하였음. 3분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 병아리수는 181만수로 지난해동기보다 4.1% 증가하였음.
-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닭고기 수입이 크게 감소함. 1~9월 닭고기 수입량은 44,358톤으로 2006년 동기간(56,743톤)보다 20.4% 적음.



V. 특 별 주 제

❶ DDA, 농업협상 동향

❷ EU, 동물복지정책 개요

DDA 2007년 농업협상 동향¹⁶⁾

- WTO 회원국들은 지난 7월 17일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 협상그룹 의장이 발표한 개정된 세부원칙(Modalities)의 초안에 대하여, 자국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으로 9월부터 집중적인 회의를 시작하였음.
- 개도국과 선진국의 시장접근에 관한 2주간의 집중적인 회의 결과, 7월 17일의 크로포드 펠코너의 의장문서를 지지해 줄만한 발전의 징후가 크게 보이지는 않았음.
- 소그룹 협상은 국내보조와 시장접근에 대해 10월 15일 주간에 계속되었으며 특히 특별품목(SPs), 특별긴급관세(SSM), 민감 품목에 초점이 맞춰졌음.

1. 회의 평가

- 9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 대해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각국의 의견차는 좁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함. 또한, 농업보조금과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등의 어려운 이슈가 11월까지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으며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DDA협상에 주요한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함.
- 협상이 지난 6월에는 교착 상태에 있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의견차가 많이 좁혀짐.

16) 이 자료는 주현정(jhj1013@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

-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는 팰코너 의장의 주도하에 3주간 집중적인 회의가 이루어짐. 7월 17일에 의장이 발표한 문서에 초점을 맞춘 회의는 DDA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것임.
- 9월 3일에 회의가 재개되면서 팰코너는 36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대표단 그룹으로 구성된 'Room E'¹⁷⁾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선진국의 시장접근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그 후 개도국의 시장접근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음. 특히 관세감축방식(tariff reduction formula), 민감 품목(sensitive products), 수입 쿼터 증량(tariff), 쿼터 내 관세, 특별긴급관세(SSG), 관세단순화, 수입 쿼터관리가 주요 논제였음.

1.1. 민감 품목

- 민감 품목에 대해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확대된 수입물량에 대한 대가로 관세 감축의 완화를 요구할 것임. 농업 분야를 많이 보호하는 EU와 G-10이 쿼터확대를 최소화하고 관세 삭감을 낮추기 위해 농산업 시장을 보호하는 반면, 미국과 케언스 그룹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은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고 있음.

17)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아프리카 그룹, 최빈 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쿠바(G-33,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 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G-20), 인도네시아((G-33,G-20,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SVE,ACP), 일본(G-10), 케냐(G-33,아프리카,ACP), 한국(G-33,G-10),레소토(LDC,아프리카,ACP), 모리셔스(G-33,ACP,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G-20,G-33), 파나마(G-33,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G-20,열대작물), 필리핀(G-33,G-20,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LDC,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G-20), 미국, 베네수엘라(G-33,열대작물,G-20).

- 농업 협상국들은 민감 품목의 지정에 이용되는 세 번을 HS 8자리 이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중 임. 케언스 그룹은 기존에 민감 품목을 현행 수입 쿼터 수준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HS 4 또는 6자리 이상을 의미함.
- 원칙적으로 민감 품목의 지정을 HS 8자리 이상으로 하는 것은 수입국에게 특정품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게 만든 것이라고 수출국들은 주장함.
- 협상국들은 민감 품목으로 지명될만한 관세부과가 가능한 세번(dutiable tariff)의 비중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고함. 그러나 그들이 지목한 HS-code의 수준은 국가의 수출에 대한 이익과 수입에 관한 불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
- 수입 쿼터 관리(tariff quota administration)에 대한 이슈도 검토되었음. 케언스 그룹은 더욱 심하게 무역을 보호하는 그들의 무역 파트너를 비판하고 수출국들은 수입할당을 채우는데 실패한 나라들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쿼터 관리에 대한 더 많은 규율을 요구하였음.

1.2. 특별품목

- ‘Room E’ 회의에서 특별품목에 대해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 개발 지표에 근거해 관세감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회원국들은 향후 개도국이 거센 수입 파고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개도국 특별 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 펠코너는 G-33에 의해 제시된 품목지표의 리스트에 대해 회원국들이 어떻게 특별품목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개도국의 이러한 그룹은 특별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도록 남기는 의견에 동의하였음.

- 그러나 수출국들은 미래의 시장접근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압력을 넣었음. G-33에 의해 제안된 품목지표 중 하나는 농업생산의 총가치 또는 가사농업소득(household agricultural income)에서의 생산물 비율로 G-33 회원국은 특별함을 주기 위해 생산물은 적어도 한 개의 품목지표 하에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
- G-33은 품목지표선정을 위한 어떠한 요구도 명백하여야하고, 객관적이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였음. 자료에 관해서 G-33은 전부터 FAO의 자료에 관해 의문을 품어왔으며 국별 데이터가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함.

1.3. 다음 단계

- 개도국의 시장접근과 관련한 다른 이슈는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상품에 대한 무관세와 쿼터 자유화 시장접근, 소규모취약국가(SVEs, small and vulnerable economics), 신규가입국(RAM, recently-acceded members)에 대한 특별대우를 포함함.
- 국내보조에 대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며 그 후 수출경쟁의 이슈도 풀어나갈 것임. 많은 정부들은 미국이 무역을 왜곡하는 농가 지불액의 상한을 낮추지 않는다면 도하협상에서의 어떠한 돌파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협상국들은 현재 진행되는 회의는 합쳐서 3주 이상 넘지 않을 것임. 10월 중순 이후 세부원칙의 개정안이 발표될 것임.

3. 협상 경과

- 2001년 11월 UR 협상 이후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출범되었음.

DDA는 총 9개의 협상의제를 포함하고 농업과 서비스는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기설정의제이며 나머지 7개 의제는 비농산물 접근(NAMA), 규범, 싱가포르 이슈, 무역과 개발,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등임.

- 핵심의제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분야이며 농업협상의 중단 원인도 이들 세 개 분야, 특히 농업과 NAMA에서의 주요국간 의견 대립이 근본 원인임.

표 1. DDA의 주요 의제

구분		의제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관련 의제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수산물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분쟁해결양해
	신규 규범 제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기타		무역과 환경, 지식재산권
비고		협상과 병행하여 개도국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 2002년 3월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각 의제별로 대립이 커진전이 없고 협상 시한을 지키지 못하였음.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의견 차와 의사결정 방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렬되었음.
- 2004년 7월 말까지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 골격을 채택하였음.

-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농업 부문에 대해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합의함으로써 구체적이진 않으나 협상진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2006년 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의 잠정적 중단을 선언되었음.
- 2006년 11월 협상 재개를 선언하여 2007년 1월 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DDA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음.
- 2007년 6월 주요 4개국(미국, EU, 인도, 브라질)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되었음.
- G-4국의 합의 도출이 실패하였지만 2007년 7월 의장의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되었음.

EU, 동물복지정책 개요 ¹⁸⁾

- 7월 16일부터 진행 중인 한·EU FTA 2차 협상 과정에서 EU는 동물복지 (animal welfare) 개념 인정에 관심을 보였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EU에서는 일반화된 기준이고, 또한 칠레,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 이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1. EU의 동물복지 중시배경

1.1. 동물복지의 정의

- 동물복지 관련 정책의 시발점은 가축이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사육, 수송, 도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어야 함.
- 이른바 ‘다섯 가지 자유(Five Freedoms)’는 이상적인 동물복지의 기본 조건으로 널리 정의되고 있으며 EU의 관련 정책에 이 정의에 기초하고 있음.
 - ① 기아·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먹거리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②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 공간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함.
 - ③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상처나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질병에 걸렸을 경우 신속히 치료를 해야 함.
 - ④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고, 같은 부류의 가축과 같이 사육해야 함.
 - ⑤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

18) 이 자료는 유찬희 연구원(chrhew@krei.re.kr)이 작성하였음.

1.2. 동물복지의 중요성: 소비자들의 여론

- 동물복지를 중시하는 가장 큰 근거는, 적정 수준 이상의 동물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 번식, 생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것이라는 사실임. 따라서 동물복지 정책을 통해서 가축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음. EU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는 동물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가축의 면역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
- EU 차원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캠페인, 공공기관과 시민의 대화 등에서 소비자들이 가축에 대한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처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까지 EU 차원에서 실시한 모든 동물복지 정책은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음.
- 한 예로 소비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62%가 보다 동물복지에 신경을 쓴 제품을 구매할 의사할 있음.¹⁹⁾ 뿐만 아니라 43%의 응답자는 육류 구매 시 항상 동물복지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유럽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소비자의 74%는 구매 결정을 통해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을 하였음.
- 대다수 EU 소비자들은 식품 라벨에 동물복지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식을 도입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는 이러한 표식이 구매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사회조사에 응한 소비자 중 39%가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기를 원했고, 35%는 로고 형태, 26%는 포장에 등급이나 별 표시를 하는 형태를 원하였음.
-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와 식품 품질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드러났음. 약 50%의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에 적합한 환경에서 자란 가축의 육질 더 좋다고 생각함.

19)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Eurobarometer Survey(2007. 3.)

- 90%에 가까운 소비자들은 EU 내부에 적용되는 동물복지 기준이 수입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1.3. 동물복지의 경제적 함의

- 축산 및 가공업은 EU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2006년 EU의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과 제품의 가치는 1,300억 유로에 달함. 동물복지는 이러한 축산 행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이러한 방식은 자원의 고갈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농촌 지역 발전에도 기여함. 공동 농업정책 하에서는 동물복지기준 도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법적 최저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기준을 유지하려면 생산과 수송비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큰 편은 아님. 예를 들어 닭을 밀집형 우리가 아닌 개방형 양계사에서 키울 경우 달걀 하나당 추가 비용은 1.3유로 센트(약 15원)이고, 방목을 할 경우에는 약 2.6유로 센트(26원)임.
- 동물복지 기준 도입으로 사육비용이 높아지더라도 발병률이 낮아지므로 실질적인 생산비용은 이전과 거의 동일함. 또한 생산량 증가와 품질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도 고려해야 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절감 효과는 전체 비용 대비 최대 17%에 이를 수 있으며, 특히 전염병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더욱 효과가 높아진다고 함.
- 보다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 홍보에도 도움이 됨. 많은 유럽 소매상들은 동물복지를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동물복지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수요처럼) 동물복지 방식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1.4. EU 차원 활동의 필요성

- 동물복지는 EU 회원국과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 사이의 국경간 거래 (cross-border trade)에서 중요한 이슈임. 특히 EU가 27개 국가의 연합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이에 더해 동물복지는 윤리·과학·경제·정치 등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럽 차원의 통합된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임.
- EU 차원의 대응은 과학적 지식을 집적하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치적 결정에 이를 수 있음. 특히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의 공통분모를 형성함에 있어 EU는 세계 다른 지역들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

2. EU의 대응 방향

2.1. 가축에 대한 EU의 복지 기준

- 동물복지 기준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가축 보호 및 복지 조약 의정서 (Protocol to the EC Treaty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에서였고 이 조약은 1999년부터 발효되었음. 이 조약은 생산에서 가공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음.
- ① 사육 단계: 사육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제정하였고, 산란계, 소, 돼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음. 2012년까지 모든 배터리식 장(battery cage)²⁰⁾을 금지하도록 하였음.
 - 산란계는 한 마리당 최소 750cm²의 사육 면적을 보장해야 함. 소규모 사육장은 최소 550cm²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

20) 작은 철조망으로 된 우리로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져 있고, 큰 창고에 열을 지어 서 있는 형태임.

이 규모 사육시설은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고, 2012년부터는 전면 금지됨.

- ② 수송 단계: 2007년 1월부터 발효된 새로운 규정은 운전자들도 동물복지를 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음. 새 수송 차량에 대해서 8시간 이상 수송을 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음. 위성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수송과 중간 휴식 시간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Regulation (EC) No. 1/2005). 이러한 규제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수송 차량에 의무화됨.
- ③ 도축 단계: 적절한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도축 전 전기로 기절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음.
- ④ 개와 고양이 가죽 추방: 2006년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개와 고양이 가죽의 수출,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제안을 채택하였음.
- ⑤ 임상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자 할 경우 EU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2.2. 동물복지 기준의 확대

- 더 나은 동물복지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EU가 추구하는 핵심 목표 중 하나임. EU는 가능한 한 동물복지를 양자간 수의 협약(bilateral veterinary agreements)에도 적용하고자 함. 칠레, 캐나다와 맺은 동식물 위생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가 좋은 예임.
- 또한 전 세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EU가 마련한 동물복지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U도 무역관련 기술 지원(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개도국 전문가들의 이해를 도왔음.

3. 가축 보호 및 복지 계획(2006-2010)²¹⁾

○ 이 계획은 가축 보호와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6~2010년에 걸쳐 시행됨. 주요 분야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현행 가축 보호 및 복지 기준 강화
- ② 가축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정책 관련 연구 장려
- ③ 표준화된 가축 복지 지표 개발
- ④ 가축 생산자·가공업자 및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참여 증대 유도
- ⑤ 국제적인 협약 제정 촉구 및 지원

○ 이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음.

- ① 육계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육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안하였음.
- ② 정보 제공: EU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 및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이용한 양방향 소통 방식을 통해 동물복지 이슈를 어린이에게 알리는 방법 등이 있음.
- ③ 7차 Framework Program(FP7)²²⁾: FP7 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동물 건강, 생산 및 복지를 최적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④ 유럽 센터(European Center): 이 센터에서는 EU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라벨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⑤ 훈련: 2006년 9월 ‘동물 복지 기준’에 관한 첫 번째 국제 훈련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21) Community Action Plan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

22) 국가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공동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1984년에 시작되어 2007년 현재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2013)’이 진행 중임. 7차 프로그램에는 533억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음.